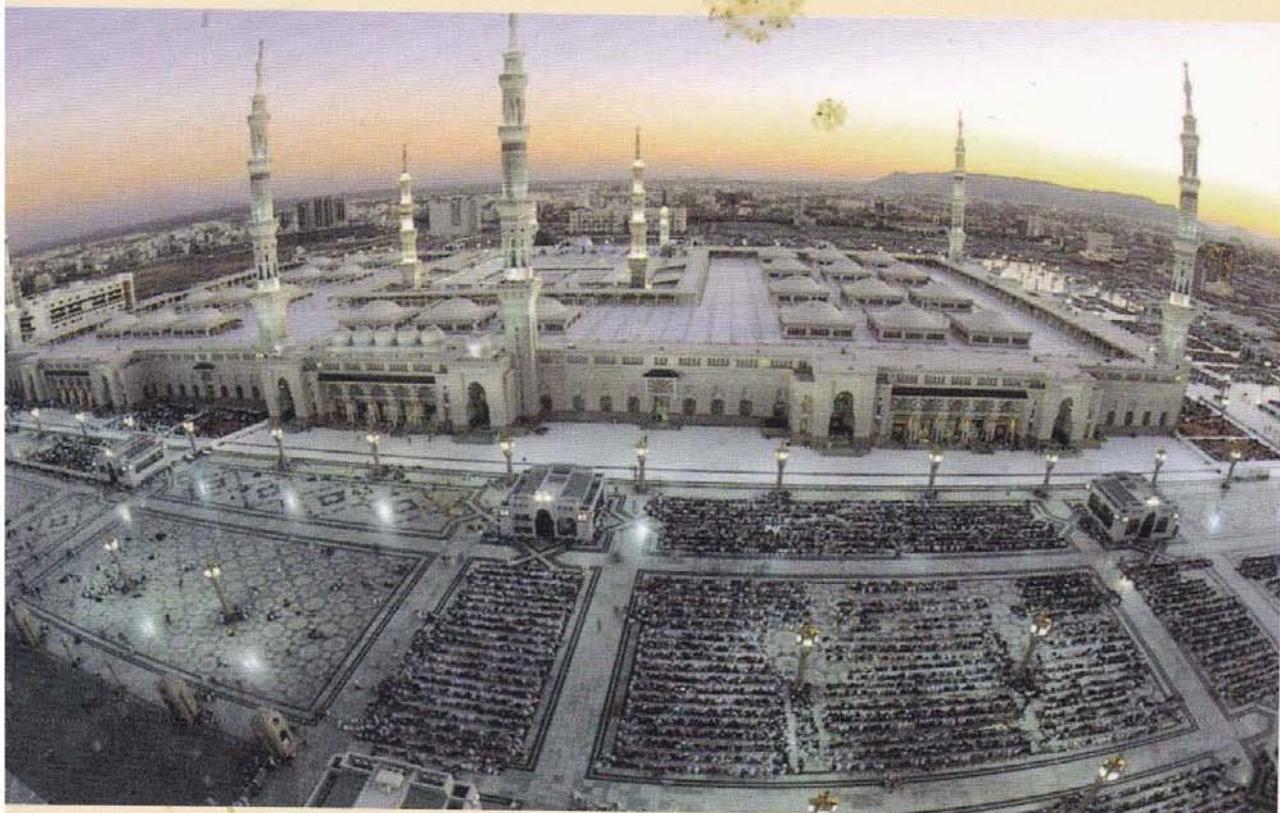


Isamic Center



137-46 Itaewon1-Dong, Yongsan-Gu,
Seoul South Korea(140-858)
Tel 0082-2-794-0968 Email:
islaminkorea@yahoo.com
www.islaminkorea.or.kr
www.islaminkorea.net

사도무함메드(Mohammed)께서
하나님(Allah)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의 생활



المفتى العام الدكتور عبد الوهاب زايد حق G.MUFTY. A. ZAHID HAQ

학(學) 압두 박사 세계 이슬람 연맹 한국대표

ممثل رابطة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مكة المكرمة في كوريا

REPRESENTATIVE MUSLIM WORLD LEAGUE SAUDIA
ARABIA IN KOREA

P.O.BOX 127 JEONJU - 560-600 - JEONBOK . KOREA

TEL & FAX: 063-272-8951 PH.018-610-1483 (zahid41@maktoob.com)

haqabdu@yahoo.com (WWW. QURAN.OR.KR)

사도무함메드(Mohammed)

께서 하나님(Allah)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의 생활



المفتى العام الدكتور عبد الوهاب زايد حق G.MUFTY. A. ZAHID HAQ

학(學) 압두 박사 세계 이슬람 연맹 한국대표

ممثل رابطة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مكة المكرمة في كوريا

REPRESENTATIVE MUSLIM WORLD LEAGUE SAUDIA
ARABIA IN KOREA

P.O.BOX 127 JEONJU - 560-600 - JEONBOK . KOREA

TEL & FAX: 063-272-8951 PH.018-610-1483 (zahid41@maktoob.com)
haqabdu@yahoo.com (WWW. QURAN.OR.KR)

목 차

제 1 장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계보

1. 아브라함(Abraham)의 아들 이스마엘(Ismael)과 그의 자손들
 - (1). 이스마엘(Ismael)의 메카로 이주의 교훈
 - (2). 카아바(Kaaba)의 건립
 - (3). 유일신을 믿는 공동체의 설립
2. 알라(하나님)의 사도 모하메드(Mohammed)의 선조들

제 2 장

1. 코끼리 사건
2.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생일
3.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수유기
4.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유모 할리마
5. 가슴을 열었던기적 : 사도 함메드(Mohammed)의 폐 수술
6.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어머니 아미나와의 생활
7.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조부 압둘 뜨립과의 생활
8.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삼촌 아부 딸립과의 생활
9.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청년기 생활
10.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카디자(Khadijah)와의 결혼
11.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자녀들
12. 하나님(Allah)의 사도들은 왜 일부 다치였는가
13. 힐풀 알 푸두울
14. 카아바(Kaaba) 재건립
15.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명상과 은둔생활
16. 사도 무함메드(Mohammed)에게 계시의 시작과 사도로서의 임명

서 론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구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유일하
신 알라(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분 이외
의 다른 신은 없음을 증언한다.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
이 전과 이후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메드
(Mohammed)은 알라(하나님)의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임
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 이전의 모든 사도들
과 예언자들 그리고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일
(Ismael)이 가지고 왔던 유일신 알라(하나님)의 종교를 가
지고 오셨으며, 주님의 메시지를 알리고 선교하심을 증언
한다.

그분들 모두에게 알라(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그리고 순결하고 청결한 무함메드(Mohammed)의 생애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사도님의 생애에 관한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반대나 어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분의 생애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정확히
전승되었다. 당시 그분의 교우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코란
(Quran) 구절처럼 암기를 시켰으며, 사도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명확한 진리를 알았다.

당시 무함메드(Mohammed) 이전의 사도들이나 예언자들
의 생애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계시를 받기 전이나 계시를 받은 후 돌아가실 때까지 무함메드(Mohammed)의 생애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보존되었다.

알라(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알려 주셨으며,, 그분들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알라(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서 잘못된 것이 없는 알라(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돋독히 하고 신념과 확신을 갖게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유일하신 알라(하나님)의 교리 아래 분열되지 않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다.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은 최후의 사도이며 예언자의 위치로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으셨으며, 그분 이후에는 어떤 사도나 예언자도 없다.

당시 믿는 자들은 알라(하나님)께 헌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생애를 전승했고 그들 또한 직접 보고 같이 경험했던 것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남겼다. 어떤 다신교도들도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알라(하나님)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메드(Mohammed)의 생애를 아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무슬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사도 무함메드(Mohammed)께서 전해 주신 이 종교를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알라(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인도를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간략하게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생애를 적어 새로운 무슬림들의 지식을 충족시켜 주고

을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무슬림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유익한 지식을 얻기를 알라(하나님)께 기원하며, 사도 무함메드 (Mohammed)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분 이전의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라(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바란다. 알라(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부모님과 모든 무슬림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스승들을 알라(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책자를 쓴 보상이 그들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책을 펴낸 목적이며 형제 우마르 이광수 학자께서 번역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 또한 한국 형제들의 가정에 행복과 알라(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1417샤으반(8월) 1997년 12월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Allah)의 이름으로 무한한 하나님(Allah)의 뜻과 이슬람세계

인간이 종교에(신에게) 귀의 하는 것은 인간의 힘에 한계를 느꼈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빌어 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 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와 같이, 원시 사회에는 많은 신들(해신, 바람신, 수신, 마당신, 부엌신 등)이 있다고 믿었으며 벼락에 맞았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하면 하늘이 노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불가사의한 많은 부분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으며, 도저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결국 유일신 즉 하나님(Allah)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알기 전, 저의 생각은 무신론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었으며, 혼존하는 각종 종교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완전하게 하나님(Allah)을 모시고 있는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알기 전과 지금의 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고 확신합니다.

저는(1958년생) 학창시절에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을 탐독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연히 이슬람에

대하여 기술해 놓은(저자는 비 무슬림 임) 책들을 발견하고는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부터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슬람에 관한 공부에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무렵, 가까운 전주이슬람 사원(전주 아부바끄르 알 시디끄)을 찾아 갔습니다 그 곳에서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 압둘 와합 자히드(이슬람 선교사)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과의 만남은 저로 하여금 이슬람에 귀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압둘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한없는 애정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기초적인 신앙생활과 많은 궁금한 것들에 관하여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것은

1. 이슬람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Allah)을 믿는다는 것.
2. 하나님(Allah)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사도 무함메드(Mohammed)(그 분께 하나님(Allah)의 평화가깃드시기를)을 하나님(Allah)의 사도들 중 한 분으로 간주한다는 것.
3. 성 코란(Quran) 이라는 1500여년 전 하나님(Allah)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
4. 약 1500여 년 동안 전혀 교리가 바뀌지 않고 단일 종교

로 순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5. 세계의 약 30 ~ 40%의 인구가 이슬람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6. 성직자의 직제(계급)가 없고, 모든 형제들이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

7.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에서는 알기 어려운 새로운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여러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뚜렷한 신관이 자리함은 물론, 마음속에 강한 연대감과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더 많으며, 무지하기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Allah)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문화적인 이질감, 독특한 예배방법, 라마단(Ramadan) 단식, 하루 5회 예배와 금요일 주마 예배 등 한국사회와 유리되는 부분들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출기는 결국 하나님(Allah)의 뜻대로의 생활이기에 지엽적인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현실의 생활 속에서 단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Allah)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인간의 일생 역시 하나님(Allah)의 계획에 의해 생과 사, 흥망성쇠를 조절함은 물론, 사후에는 각 개인의 선행과 죄를 염중히

가려 영혼의 문제까지 오직 하나님(Allah)만이 관장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귀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Allah)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도 온전히 이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저의 두서 없는 말이 이 책의 가치에 흠이 되지 않을지 염려되며,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자 이 책의 저자이신 압둘와합 자히드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1999. 1. 28 / H. 1419/ 10/ 10

압둘라 고 광 빈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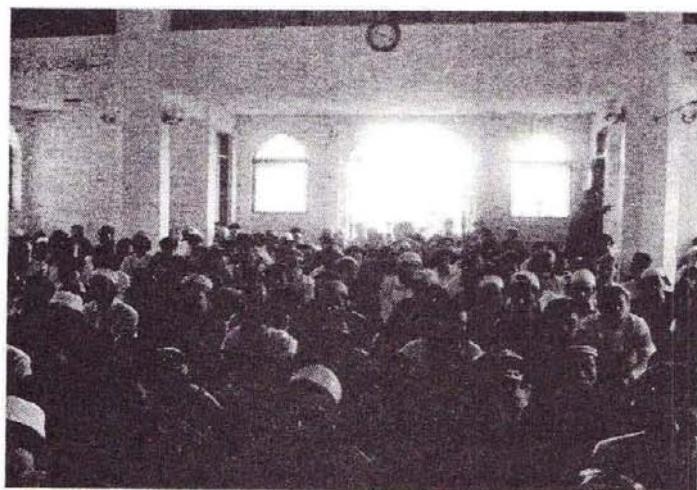
제 1 장

알라(하나님)의 사도 모하메드(Mohammed)의 계보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계보는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Abraham)과 그분의 아들인 이스마엘(Ismael)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에서 우리는 아브라함(Abraham)에서 모하메드(Mohammed)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조상들 이름을 알아본다.

1. 아브라함(Abraham)의 아들 이스마엘(Ismael)과 그의 자손들
2. 하나님(Allah)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선조들



1. 아브라함(Abraham)의 아들 이스마엘(Ismael)과 그의 자손들

(1). 알라(하나님)께서 아브라함(Abraham)을 통하여 아브라함(Abraham)장 39아야(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장남 이스마일(Ismael)을 주신 알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알라(하나님)의 예언자이신 이스마엘(Ismael)은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땅 시리아 남쪽에서 B. C 1781년에 태어나서 B. C 1648년에 사망했다. 그는 143년을 살았다.

(2).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훌륭한 자손들을 나오게 했으며,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이스마엘(Ismael)에게 그의 형제 이삭과 그의 아버지처럼 예언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계시를 내리셨다. 알라(하나님)께서 코란(Quran)에서 말씀하시기를 [나(하나님)는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를 하였다. - 이므란장 84절 -]

또한, 알라(하나님)께서는 코란(Quran)에서 이스마엘(Ismael)을 언급하셨으며, 그로부터 예언자들을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Abraham)의 아들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Ismael)에게 잠잠의 물(약수)을 허락하였으며, 이스마엘(Ismael)로부터 훌륭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3). 구약 창세기 21장에 언급하기를 [사라(아브라함 부인)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애굽(이집트) 출신인 하갈(Hagar)의 소생이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큰 근심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하나님(Allah)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者)라야 네 씨라 칭할 것 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Abraham)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Hagar)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Hagar)이 집을 떠나 브엘세봐 들에서 방황하던 중에 가죽부대의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산 중턱쯤 가서, 주저 앉아, 대성통곡하니, 하나님(Allah)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Allah)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Hagar)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Hagar)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Allah)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불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Allah)이 하갈(Hagar)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Allah)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아이가 그를 위하여 애굽(이집트)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위의 구약성서 구절에서는 유태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 3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업을 얻지 못하리라’의 구절에서 살펴보면, 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유태인들은 아브라함(Abraham)에게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Ismael)에 관해서만 언급한다. 여기에서 사라는 왜 다른 여섯 명의 바끄뚜라의 자식들에게는 상속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는가?
- 2). 중상과 질투
- 3). 애정과 자비심의 결여 그리고 핍박

그러나 아브라함(Abraham)의 부인 사라는 이 세 가지 속성과 거리가 멀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사라는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Abraham)의 부인이며, 그들의 어머니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바로 알라(하나님)께서 재물을 탐내고, 중상과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신앙심은 지구상 그 어떤 여인보다도 강건했으며, 가장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속성은 중상과 질투와는 상반되는 속성이다. 그녀가 인간으로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과 질투 그리고 재물을 탐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했던 유태인들의 구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

들이 바로 재물을 탐하고, 중상을 일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 알라(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올바른 여인인 사라에게서 이러한 나쁜 속성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녀는 90세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녀가 폐경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녀의 임신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녀가 자애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녀가 열사의 사막 한 가운데 어린아이를 버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류에 대한 유태인들의 험오스런 행동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행한 짓이며, 결국 이를 위해 유태인들이 이 표현을 왜곡시켰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알라(하나님)를 잊고 재물을 승배하기까지 한다. 누구든지 물욕이 많으면 심성이 악해지고, 자비와 사랑을 잃게 된다. 구약에 언급한 [이 주를 시키게 된 원인은 재물 즉 상속 때문이다]라는 구성은 알라(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내셨던 궁극적인 목적과 상반된다. 알라(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선한 심성과 상호 존중을 추구함과 동시에, 중오를 버리고 중상모략과 현세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경전들을 내보내셨다. 알라(하나님)께서 구약 또한 알라(하나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광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보내신 것이다.

코란(Quran)의 안암장 91 아야(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일러 가로되, 모세가 인

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뇨?] 이것으로 현재의 구약에 언급된 것들이 만약 알라(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신성한 경전과 상호 모순된다면, 그것(현존의 구약)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오직 유대인들의 상속 문제때문에 왜곡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이지, 알라(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알라(하나님)께서 아브라함(Abraham)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을 황량한 사막의 땅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한 것은, 매우 숭고하고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지 추방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내용을 왜곡시키고,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중상된 말과 이삭이 이스마엘(Ismael)보다 훌륭하다는 표현들을 구약에 첨가시켰다. 그들의 이러한 목적은 그들의 구약에 대한 맹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4). 이스마엘(Ismael)이 메카로 이주한 교훈

와디 메카라는 말은 오랜 세월 동안 태양열에 의해 까맣게 그을린 산들로 둘러싸인 매우 건조한 사막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이 와디란 땅의 중심으로 간주되며, 땅 위에서 모든 방향의 중심점이 되는 곳이다. 그곳에는 가장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작렬하며, 물도 없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라(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Abraham)에게 이주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세속에 찌들지 않는 그곳에서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착시키도록 계시하신 것이다.

그 계시는 바로 다음과 같다.

- 1). 지상 위에서 최초로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를 경배

하는 집의 건설이며, 알라(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최초의 집이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 받는 카아바(Kaaba)에 있도다.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거늘, 그곳에는 예종으로써 아브라함(Abraham)의 발자국이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행할 것을 의무로 하셨으니, 이를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Allah)께서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 것 이니라! 이므로 96-97아야(절)].

2). 그곳은 예언자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Abraham)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이 알라(하나님)에 대해 경배할 집이다.

[기억할지니 우리는 그 집(카아바)을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었으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Abraham)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로 할지어다! 바까라장 125 아야(절)].

3). 그곳은 알라(하나님)의 유일성을 전파하는 다와(선교)의 장소이며, 알라(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전 세계로 알리는 중심점이다. 당시 지상에는 인간의 신앙적 본성이 상실되고, 군주의 법칙에 따라 고통 받으며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Abraham)이 그의 자손들을 당시 그 땅으로 이주시킨 것은,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궁극적 목표이며, 아브라함(Abraham)의 목표이기도 한 유일하신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지상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유일신 알라(하나님)의 인도의 빛을 비추고, 알라(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정착시키는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메카 땅을 선택하셨으며, 당시 그 땅은 가장 청결한 땅으로 인식되었다.

(5). 카아바(Kaaba)의 건립

우리는 앞에서 알라(하나님)께서 아브라함(Abraham)으로 하여금 그의 장남 이스마엘(Ismael)과 부인 하갈(Hagar)를 아라비아 반도로 이주하도록 명령하신 것에 대한 교훈을 알아봤다. 이는 도시의 혼돈으로부터 멀어지게하고, 사탄의 유혹과 세속에 찌든 사람들이 아닌 순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알라(하나님)의 유일성과 온 우주의 주님이신 그 분의 복음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주임을 알았다. 그래서 메카에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를 경배하는 최초의 성전을 그의 아들, 이스마엘(Ismael)과 같이 건립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알라(하나님)의 집이며, 성스러운 카아바인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Abraham)이 메카의 기초를 세우면서 그 위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셨으니,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알라(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다. 메카의 성지에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그분의 유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초를 처음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Abraham)이며 마감 아브라함(MAQAM IBRAHIM)이라 불리던 날, 이 성지에서부터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이 아랍에 알라(하나님)의 교리를 전파하여 아랍에 유일신의 교리와 다와(선교)가 퍼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성지에서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모하메드(Mohammed, 그분께 평화가)에 의해 이슬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바까라장 125아야(절)에 언급하기를, [기억할지니 나(하나님)는 그 집(카아바)을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었

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Abraham)이 멈춘 그 곳을 경배의 장소로 할지어다!]

여기서 마감 아브라함(MAQAM IBRAHIM)은 아브라함(Abraham)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경배를 위해 알라(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건립한 집을 말한다. 그리고 알라(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Abraham)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Ismael)로 하여금 그 장소를 우상 숭배와 다신 숭배로부터 보호하고 청결하도록 명령하셨다.

[또한 봄아프(메카 주위를 돌며 경배하는 행위)를 행하고 옆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에게 명하였느니라! 바까라장 125아야(절)].

아브라함(Abraham)이 카아바 건립을 완성하고 난 후,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올렸다.

[아브라함(Abraham)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 하나님(Allah)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Allah)이 말씀하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하게 하다가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바까라장 126아야(절)].

그리고서 아브라함(Abraham)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Ismael)이 알라(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당신이야말로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주여! 저희가 무슬림으로써 당신께로 귀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음마(Ummah)를 형성하여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럽고 자비하시도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서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도다!]

아브라함(Abraham)의 신앙을 배반하는 자, 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나니, 나(하나님)는 그를 선택하여 세상에 보냈도다. 그는 내세에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네게로 귀의할 지어다.”라고 했거늘,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귀의했나이다.”라고 말했도다.

아브라함(Abraham)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곱도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Allah)께서 그대들에게 신앙을 선택하여 주셨나니, 무슬림으로써 그 안에서 생애를 마칠지어다.

야곱이 죽음에 이를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길,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길,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인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인 하나님(Allah)만을 경배하며, 그분(하나님)에게만 순종하나이다”라고 하였더라! 바까라장 127-133아야(절)].

이슬람은 알라(하나님)께 완벽한 귀의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평화와 안정을 얻는 것이다. 이슬람은 무함메드(Mohammed) 이전의 아브라함(Abraham)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Ismael)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예수가 선교를 했던 종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

메드(Mohammed, 그분께 평화가)께서 오셨으며,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아브라함(Abraham)이 선교했던 이 종교를 완성시키고, 동시에 아브라함(Abraham) 이후 모세 이후 그리고 예수 이후 인간들에 의해 왜곡되고 변절되었던 종교를 올바르게 정립했으며, 아브라함(Abraham)의 종교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Abraham)이 건립한 카아바는 모든 무슬림들이 알라(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향하는 곳이다. 그곳은 사람들이 알라(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이며, 카아바를 향하여 주님께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분은 아브라함(Abraham)이며, 그의 아들 이스마엘(Ismael)에게도 명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였으며, 그가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칭하였다. 코란(Quran)에 언급되기를, [그분(하나님)께서는 선택하사 아브라함(Abraham)의 신앙심이 종교 안에서 너희를 어렵게 하지 않으니라! 그분(하나님)은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희를 무슬림이라 부르셨으며,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중인이 되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중인이 되리니,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희사금)를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Allah)을 따르라! 그 분은 보호함과 도와주심이 가장 으뜸이신 보호자이시니라!]

그리고 아브라함(Abraham)의 기도에서 메카 백성들을 위하여 평화와 풍요로운 결실을 기원하였으며, 알라(하나님)께서 아브라함(Abraham)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구상에 어떤 곳도 메카와 같이 모든 사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은 없다. 메카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메카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평화와 안녕이 있다.

(6). 유일신을 믿는 공동체의 설립

아브라함(Abraham)이 카아바(Kaaba)를 건립한 후 그의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아브라함(Abraham)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 하나님(Allah)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 바까라장 125아야(절).

알라(하나님)께서 아브라함(Abraham)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마엘(Ismael)이 주르함 2세 부족들과 같이 메카에서 정착하였으며, 그들 중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구약에서는 그의 어머니 하갈(Hagar)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이고 또한 당시, 이집트인들은 매우 깨우친 문명인들이었다. 만약 이스마엘(Ismael)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그의 목표와 의무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들은 알라(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들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왔으며, 아담은 흙으로 부터 왔다.

이스마엘(Ismael)의 자손들이 아랍 부족을 이루어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퍼졌다. 그들은 히자즈 지역과 예멘 지역에도 거주하였다. 그들의 본 정착지는 메카이며, 알라(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조인 이스마엘(Ismael)에게 허락한 잠잠샘물의 주인이며, 이 잠잠은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 그분께 평화가)의 조부인 압둘 뜻딸립 이븐 하심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계속 상속되었다.

알라(하나님)의 예언자이신 이스마엘(Ismael)은 그의 자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물려주었다. 그들 중 “나비트 이븐 이스마엘 이븐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Abraham)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사촌이다. 야곱과 나비트

는 아브라함(Abraham)의 손자이며, 나비트는 사도나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의 자손들 중 최후의 예언자이신 “모하메드 이븐 압둘라(Mohammed Ibn Abdu Allah)”가 오게 된다.

당시 주르훔 2세 부족들은 예멘에서 왔으며, 이스마엘(Ismael)과 같이 잠잠 샘물 근처에서 정착을 하였다.

이스마엘(Ismael)은 그들에게 유일신 알라(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다와(선교)하였으며, 이스마엘(Ismael)의 다와(선교)는 그들에게 퍼져 나갔으며, 인근 다른 부족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리고 점차 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그들 후손들에 의해 예멘의 하다를 마우트까지 전파되었다.

이스마엘(Ismael)의 자손들은 숫적 열세 때문에 바크르의 자손들과 쿠자아의 가브샨이 연합하여 주르훔 부족을 지배하다가 얼마 못가서 메카를 점령한 뒤, 쿠자아 부족이 바크르 부족을 몰아내고 메카를 차지하였다. 당시 그들은 메카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잠식하여 우상들을 들여오고, 우상과 다신들을 메카에서 숭배하였으며, 쿠자아 부족을 물리친 꾸시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쿠자아 부족을 몰아낸 후 이스마엘(Ismael) 자손들은 메카로 귀환하였으며, 아랍을 이루었다.

2.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선조들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선조는 아브라함(Abraham)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장남 이스마엘(Ismael) 그리고 그의 아들 나비트, 나비트는 야시후브를 낳고 야시후브는 야으루브를 낳고, 야으루브는 타이라흐를 낳고 타이라흐는 나후르를 낳고, 나후드르는 무꺼우임과 아두드를 낳고, 아두드는 아드난을 낳았다.

이들은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 아랍인들 간에는 아주 훌륭한 혈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름들은 아랍의 인류학자와 역사 학자들이 전승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는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선조들을 아두드의 아들 아드난 부터 언급하도록 하자.

(1). 아두드의 아들 아드난: 아드난은 아랍에서 매우 유명하다.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어 아랍 무스따라바 민족을 이루었다. 그의 아들들은 아쿠와 마아드가 있다.

아쿠는 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예멘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그의 후손들이 아랍화 되어서 예멘의 아랍인이 되었으며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Ismael)의 자손임에 이견이 없다.

(2). 아드난의 아들 마아드: 아드난의 아들 마아드는 메카

의 카아바(Kaaba) 주위에 정착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메카의 지도자들이 나왔으며, 그들이 카아바(Kaaba)의 열쇠를 갖고 있다.

당시 아드난의 아들 마아드는 매우 용맹스럽고 강한 기사였으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거의 모든 전쟁이 억압 받는 자들을 펑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의 이름은 부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고 모두 그를 좋아 했으며 그를 아랍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의 아들들은 니자르, 깐수 그리고 꾸와아가 있었다. 깐수는 죽었고 꾸와아는 예멘의 씨바 지역의 후마이르로 이주하였다.

(3). 마아드의 아들 니자르: 마아드의 아들 니자르는 메카에서 그의 아버지의 땅을 물려 받아 정착하였다. 그는 당시 아랍에서 가장 현명했고 준수했다. 그는 사람들을 지혜와 이성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의 아들들에는 라비아, 암마르, 아이야드, 무다르가 있다.

(4). 니자르의 아들 무다르: 그는 일리야스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며 준수하고 청아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부친인 니자르를 닮았다. 그 이전에 무다르처럼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선행은 서두르고, 악행으로부터 그대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벼려라.] 그리고 무다르는 매우 고귀하고 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누구라도 그를 보는 사람은 그의강인한 성격을 배운다.

그는 카아바(Kaaba)의 열쇠를 물려 받았고 아랍을 지도해 나갔다. 그의 아들은 가일란과 일리야스가 있다.

(5). 무다르의 아들 일리야스: 그는 고귀한 성품으로 성장했으며,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마엘(Ismael)이 전파한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가 메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이 전파한 교리를 재정립하여 사람들을 다와(선교) 하였고,, 이스마엘(Ismael)이 가지고 왔던 율법을 실행하였다. 당시 그는 여행에서 매우 공정한 판사였다. 다음은 그가 남긴 교훈 중 하나이다.

[선행을 뿌린 사람은 행복을 수확하고 악행을 뿌린 자는 후회를 수확하리라.]

아랍에서 그를 루끄만 판사와 같은 아랍의 판사라 불렀다. 그에게는 아미르, 따비카 그리고 꼼마아 등의 자식들이 있었다.

(6). 일리야스의 아들 아미르: 일리야스의 아들 아미르는 무드라카라는 호칭으로 아랍에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그의 부친과 조부의 용맹과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친과 그의 조부인 무다르의 관용과 고귀한 성품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드라카라 부르며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그에게는 쿠자이마와 후자일 두 아들이 있었다.

(7). 아미르의 아들 쿠자이마(무드라카): 당시 메카는 이스마엘(Ismael) 자손들의 외사촌들인 주르훔 부족들의 지배 하에 있었고, 카아바(Kaaba)의 잠잠 샘물은 이스마엘(Ismael) 자손들 소유였다. 그러나 쿠자아 부족들이 연합하여 주르훔 부족을 죽이고 메카에서 추방하였다. 주르훔 부

족과 쿠자아 부족의 전쟁에서 쿠자아 부족이 승리함으로써 메카는 쿠자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쿠자이마가 살던 당시 아므로 이븐 루하이가 최초로 우상 숭배를 시리아의 불까 지방에서 메카로 들여 왔다. 장사를 위하여 그곳에 여행할 때 그는 그곳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매우 고귀한 분들을 형상화 하여 만든 신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비를 기원한다.] 그는 그것들에 매우 흥미를 느껴 우상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메카로 돌아와 카아바(Kaaba)에 그것을 갖다 놓았다. 그는 우사프와 나일라라는 한 쌍의 우상을 가지고 온 것이다. -

이것이 이스마엘(Ismael) 후손들이 메카에서 우상을 섬기는 시초가 된 것이다. 당시 쿠자이마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아들들은 키나나, 아싸드, 아싸다, 알하운이 있었다.

(8). 쿠자이마의 아들 키나나: 키나나는 아민(믿을 수 있는 자)이라는 별호를 갖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 주었다. 만약 누가 그에게 비밀을 말하면 그는 그의 비밀을 지켜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봉하고 좋아했고,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맘(Imam) 무슬림의 하디스(Hadith)에서 와실라 이븐 알 아쓰카가 전하기를,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 이스마엘(Ismael)의 자손 중에서 키나나를 선택하셨으며, 그로부터 꾸레이쉬(Quraysh) 부족을 선택하시고 꾸레이쉬(Quraysh) 부족에서 하심가를 선택하셨고 하심가에서 바로 나를 선택하셨도다.

키나나의 자손은 안나드루, 말리크, 압두마나트 그리고 마아칸이 있다.

(9). 키나나의 아들 안나드루: 안나드루는 그의 피부가 하얗고 아름답기 때문에 불리워진 이름이다. 그는 많은 고아들을 돌봐주고 도와 준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자손은 말리크와 야클루드가 있다.

(10). 안나드루의 아들 말리크: 그는 아랍의 주인이었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 때문에 말리크라 불리웠다. 그의 자손들 중 피흐루가 있다.

(11). 말리크의 아들 피흐루: 피흐루가 바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시조이며 그가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라 이름 지었다. 그는 그의 부친처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까르쉬’란 말은 조사하고 찾았다던다는 말이다) 그가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시조이며 아랍인들은 그의 자손들을 모두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메카로 성지순례 오는 순례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도록 유언을 남겼다. 그의 아들들은 아싸드, 갈리브, 그리고 무하리브와 알하리쓰가 있다.

(12). 피흐루의 아들 갈립: 그는 따밈의 아버지라 불리웠으며, 성품이 고귀하고 공정하며,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카아바(Kaaba)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루아이와 따밈이 있었다.

(13). 갈립의 아들 루아이: 루아이는 그의 아들 카압의 교육에 매우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카압의 아버지라 불리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훌륭한 교육과 지도 그리고 고상한 성품을 갖도록 가르쳤다. 그의 자녀 중에는 카압이 있었다.

(14). 루아이의 아들 카압: 그는 매우 칭송 받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아랍에서 매우 존경 받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성지순례 때에 그의 설교와 조언을 청하였다. 카압이 바로 주마(금요일)때 사람들을 모이도록 규정한 사람이다. 당시 그는 주마(금요일)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 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모여들었으며, 그의 설교를 듣기를 청하였으며, 그는 많은 훌륭한 설교를 남겼다.

(15). 카압의 아들 무르라!: 아랍 사람들은 무르라!를 야까자의 아버지라 불렀으며, 그는 매우 이성적이며 관대하고 올바른 판사였다. 사람들은 그의 관대한 성품 때문에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에게는 하킴이라는 아들이 있다.

(16). 무르라!의 아들 하킴(킬립): 아랍에서 그는 킬립이라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냥을 나설 때 꼭 사냥개를 데리고 가기 때문이다.

그는 사냥을 매우 좋아했으며, 매우 말을 잘 탔으며,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칭송 받는 성격의 소유

자였으며, 그가 바로 무함메드(Mohammed) 사도의 할아버지이다. 그에게는 꾸쇠이 즉, 무함메드(Mohammed) 사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와 무함메드(Mohammed) 사도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인 주흐라가 있었다.

(17). 퀸랍의 아들 꾸쇠이(이름은 자이드): 꾸쇠이는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 산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시기에 태어났다. 당시 메카는 쿠자아 부족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메카의 성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권력은 세습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할릴 이븐 하바시야 이븐 쌀를 이븐 카압 이븐 아므루 이븐 라비아이다. 꾸쇠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산기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꾸쇠이가 메카 통치자 할릴 알 쿠자이의 딸에게 청혼을 했고 할릴은 그것을 수락하여 그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그들은 압둘다르(Abduldar) 그리고 압두마나프(Abdulmanaf), 압둘 웃자(Abdul uzza), 압단(Abdan) 등의 아들들을 낳았었다. 꾸쇠이의 아들들이 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그의 명성이 나라 안에 알려져 전지전능 한 사람들이 그의 인품과 성격을 흡모하였다. 쿠자아 부족의 할릴이 죽고 난 후 꾸쇠이는 그가 바로 메카를 지도할 권리가 쿠자아 부족보다 더 있다고 믿었다. 그는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며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이스마엘(Ismael)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꾸레이쉬(Quraysh) 부족과 키나나 부족을 연합하여 쿠자아 부족을 메카에서 축출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꾸쇠이가 카아바(Kaaba)와 메카를 통치할 우선적인 권리가 돌아 오도록 하셨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다. 꾸쇠이는 꾸레이쉬

(Quraysh) 부족을 메카의 보금자리로 돌아 오도록 하였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랍은 그를 연합시킨 자라 불렀다. 그가 카압의 후손으로 최초로 메카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

당시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그들 집안에 있는 금지된 나무를 베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꾸쇠이가 그것들을 베어 버렸다.

당시 어느 누구도 꾸레이쉬(Quraysh)에 관계된 일을 찾지 못하고 꾸레이쉬(Quraysh)와 결혼하거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국책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고 전쟁에 관한 것조차 꾸쇠이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 했었다. 당시 그의 명령은 그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종교와도 같았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업무를 보는 관청을 세웠으며, 그 정문을 카아바(Kaaba)로 향하게 하였으며,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이 그 안에서 업무를 봤다. 그리고 꾸쇠이는 순례를 체계화 했으며, 메카 행정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는 80세에 세상을 등졌으며, 그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분산해서 물려주었다.

압둘다르에게는 전쟁을 관장하고 압두마나프에게는 순례자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였다.

당시 국가 업무를 관장한 곳은 다음과 같다.

1). 다룬 나드와: 이곳은 꾸레이쉬(Quraysh) 부족장들이 모여 국책 회의를 하던 곳

이곳에서 메카의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정족수 모두가 모이기 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국책 회의 위원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있다)

2). 알리파다: 이곳은 순례 철에 메카로 순례 오는 순례 객들에게 음식 접대를 담당하는 부처

3). 알리와: 군대를 총괄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부처

4). 알히자바: 카아바(Kaaba)의 경비를 담당하는 부처

5). 알씨꺼야: 순례 때 순례 객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부처
그러나 다른 나드와는 이슬람이 폐지시켰고 그 업무를 이슬람의 통치기구로 이전시켰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개인의 의견 보다 다수의 동의에 비중을 둔다. 이것이 바로 다른나드와이며 메카에 세웠으나 하킴 이븐 히잔 이븐 쿠와이라드 이븐 앗사드 이븐 압둘웃자 이븐 꾸쇠이가 이 집을 사들였다가 무아위야 이븐 아비 수피얀 시대에 다시 10만 디르함에 팔았었다. 당시 무아위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 조상들의 봉덕을 팔았다.

그가 무아위야에게 대답하기를, 알라(하나님)를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떤 봉덕도 없다. 진실로 나는 그 집을 불결한 것으로 사서 10만 디르함에 팔았다.

(18). 꾸쇠이의 아들 압두마나프: 그는 꾸쇠이의 아버지로 불렸으며, 그의 이름은 무기라였다. 사람들은 그의 준수한 용모 때문에 그를 '달'이라 불렀으며, 그에게 순례 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중책을 맡겼었다. 아랍인들은 그의 선행과 공덕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알라(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심과 알 뜻딸립, 압두 샘스 그리고 누팔 등의 아들들을 주셨다.

(19). 압두 마나프의 아들 하심: 하심은 그의 조상들을 봉덕과 선행으로 칭송 받게 하였으며, 많은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을 때 하심이 시리아로 장사를 떠났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로 밀 등의 음식을 사서 메카로 돌아왔다. 그리고 낙타를 잡아서 빵과 고기를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굶주린 이웃 부족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당시 그는 방랑자들을 도와주었으며, 그를 사람들은 신의와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압두 마나프의 아들 하심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순례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당시 하심은 꾸레이쉬(Quraysh) 부족을 위해 여름과 겨울 각각 한 번씩 여행을 하였으며, 그가 메카에서 처음으로 빵을 섞은 수프를 제공한 사람이며 당시 그의 이름은 아므로였는데 이일로 그를 하심이라고 불렀다

시인이 언급하기를, 아므로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빵과 수프를 나누어 주었을 때 메카의 백성들은 2년동안 굶주렸었다.

하심은 시리아의 가자에서 A.D 510년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그가 맡았던 직책이 그의 형제인 압두 마나프의 아들 알 뜻딸립에게로 양도되었다 당시 하심은 압둘 샘스보다 어렸었다. 당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그를 지성적인 사람으로 불렀으며, 그에게는 압둘 뜻딸립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20). 하심의 아들 압둘 뜻딸립: 그는 그의 삼촌인 뜻딸립

으로부터 순례 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직책을 물려받았으며, 그는 알라(하나님)의 사도이신 모하메드 이븐 압둘라(Mohammed Ibn Abdu Allah) 이븐 압둘 뜻딸립 이븐 하심의 조부이다. 당시 그는 하리스의 아버지라 불리웠다.

아랍인들이 그를 칭송 받는 수염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 흰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압둘 뜻딸립은 어렸을 적부터 그의 삼촌인 알 뜻딸립과 같이 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둘 뜻딸립을 ‘압두 암미히’ 그의 삼촌 알 뜻딸립이라 불렀다.

압둘 뜻딸립은 메카시의 지도자였으며, 불의를 척결하는 것을 좋아했다. 누구든지 공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도 공덕을 베풀었다. 그는 산꼭대기에도 음식을 놓아 두어 야생 동물과 새들이 그 음식들을 먹도록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는 훌륭한 삶과 온유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당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그의 견해를 존중했다. 그는 매우 준수하게 생겼으며,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었다. 그의 후손에서 최후의 예언자가 왔으며, 그가 잠잠 샘물을 보수하였다. 그는 주르함 부족을 메카에서 축출하고 난 후 그들이 흙으로 메웠던 잠잠 샘물을 다시 팠다.

1). 잠잠 샘의 공사

이븐 이스학 알 뜻딸라비가 전하기를, 하나님(Allah)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압둘 뜻딸립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에게 잠잠 샘물을 다시 파도록 명령이 전달되었다. 그곳은 꾸레이쉬(Quraysh) 부족을 헤치기 위해 주르함 부족이 메카를 떠나면서 흙으로 메웠던 곳이다.

그 샘은 이스마엘(Ismael)이 어렸을 적에 알라(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샘물이며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를 위해 물을 모았던 곳이다. 그의 어머니는 싸파까지 가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Ismael)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알라(하나님)께 구했으며, 마르와에 가서도 똑같이 행하였다.

그래서 알라(하나님)께서 가브리엘(Gabriel) 천사를 보내 땅에서 물이 솟아 오르도록 하였으며, 이스마엘(Ismael)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흐르는 물을 손으로 모아 그의 아들에게 먹였다.

알라(하나님)(그분께 은총이)께서 말씀 하시길, 암둘 뜻딸립이 그의 아들 알하리스와 같이 샘을 파기 시작해서 샘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울 때까지 왔었으며, “알라(하나님)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암둘 뜻딸립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 암둘 뜻딸립이여! 이것은 우리의 시조인 이스마엘(Ismael)의 샘이다. 이것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으니 당신과 동참하겠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그분께 특정지어진 것이지 당신들 중에 어떤 권리도 없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건에 관하여 공정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결코 포기 못한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와 당신들 사이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나는 이 건에 대한 당신들의 주장을 판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니싸으드의 예언자?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당시 이 예언자는 시리아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암둘 뜻딸립과 암두 마나프 부족과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각 대표들이 함께 말을 타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떠났고 시리아와 히자즈 지역 중간의 황량한

사막의 땅까지 도달하였다.

압둘 뜻딸립과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물이 바닥나고 그들이 갈증으로 목숨을 잊게 되리라. 포기하기에 이르러서 그들은 꾸레이쉬(Quraysh) 부족에게 물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들과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압둘 뜻딸립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직 당신의 선택만 있을 뿐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모두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힘이 남아 있을 때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죽게 되면 옆의 친구가 그 구덩이를 덮어 주고 그런 식으로 최후 마지막 남는 사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구덩이를 파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렸다. 압둘 뜻딸립이 그의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우리가 이처럼 죽게 되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아무 노력도 안 해 보고 말인가? 어쩌면 알라(하나님)께서 여러 땅에 물을 주신 축복을 주셨을 것이다. 일어나라!

그들이 이동할 준비를 마쳤을 때, 압둘 뜻딸립과 함께 있던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압둘 뜻딸립이 앞장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낙타의 밑에서 커다란 샘물이 터져 나왔다. 압둘 뜻딸립과 그의 동료들이 알라(하나님)를 칭송하였다. ‘이것이 이스마엘(Ismael)의 교리이다.’ 그들은 이 물을 마시고 그들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후,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을 불렀다. 물로 빨리 와라! 알라(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들은 물을 마셨고 말하기를,

진실로 당신이 옳았소. 압둘뭇딸립이여! 진실로 우리는 잠잠에 대하여 결코 당신과 논쟁을 하지 않겠소. 진실로 오늘 당신께 물을 드리신 분이 바로 잠잠을 주신 분이요.

당신께 그 권리를 돌려주겠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되돌아왔으며, 바니싸으드 예언자에게 가지 않았다. 무함메드 (Mohammed)의 조부인 압둘 뜻딸립에게 메카의 통치를 맡겼으며, 알라(하나님)의 성스러운 집을 순례하는 순례 객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도 하였다.

잠잠 샘물은 알라(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잠잠에는 축복과 도움이 있다.

2). 압둘 뜻딸립의 자녀는 열명의 아들과 여섯의 딸이 있었으며, 아주 고귀하고 선하고 관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A) 그들은 다음과 같다.

- 1). 알 하리스: 아미르 부족의 쇼피야가 그의 어머니이다.
- 2). 아부딸립: 그의 이름은 압두 마나프이며, 그의 어머니는 파티마 빈트 아므로 알 마크주 미야이다.
- 3). 알 주베이르: 그의 어머니는 파티마 빈트 아므로 알 마크주 미야이다.
- 4). 알 압바쓰: 그의 어머니는 나틸라 알 아 미리야이다.
- 5). 뒤라르: 그의 어머니는 나틸라 알 아미리 야이다.
- 6). 함자: 그의 어머니는 할라 빈트 와합 알 주흐리야이다.
- 7). 알무거우임: 그의 어머니는 할라 빈트 와 합 알 주흐리야이다.
- 8). 아불라합: 그의 이름은 압둘 웃자이며, 그의 어머니는 루브나 알 쿠자이야이다.
- 9). 알기다끄: 그의 어머니는 뮬니아이다.

10). 압둘라: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의 부친이시며 그는 압둘 뜻딸립의 막내였다. 압둘 뜻딸립은 압둘라가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둉겼으며, 알 주흐리야가 그를 아미나에게 결혼시켰고 아미나는 무함메드(Mohammed)를 임신하였다.

B) 압둘 뜻딸립의 딸들은

- 1). 쇠피야
- 2). 부르라!
- 3). 아르와
- 4). 옴무하킴
- 5). 아티카
- 6). 우마이마

(21). 압둘 뜻딸립의 아들 압둘라: 그는 무함메드(Mohammed)(그분께 평화가)사도님의 부친이었다. 그분의 부친인 압둘 뜻딸립은 압둘라의 교육과 양육에 매우 관심을 가졌으며, 압둘라가 매우 성품이 옳고 고귀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많은 아이들이 그를 존경하였다. 그는 와합 주흐리야의 딸 아미나와 결혼하였고, 그녀는 메카의 귀족 중 하나인 주흐라 부족 출신이다. 그녀와 압둘라의 족보는 하킴(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니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의 부모의 계보 모두 하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미나는 압둘라로부터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알라(하나님)의 사도인 무함메드(Mohammed)이시다.

1). 내게 열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압둘 뜻딸립의 아들 중 하나를 재물로 바칠 것이라는 맹세: 압둘 뜻딸립은 잠자 샘물을 다시 팔 때 꾸레이쉬(Quraysh) 부족을 만나면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내게 열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나와 같이 와서 나의 이 일을 막는다면 나

는 그들 중 하나를 카아바(Kaaba)에서 재물로 바칠 것이다.” 그의 아들이 열명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막을 것을 안 그는 그들을 모이게 하여 맹세를 알려 줬다. 그리고 그들을 알라(하나님)를 위해 수행할 한 이 일에 대해 복종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복종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 각자가 싫어하는 자의 이름을 적어 내게로 오라.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리고 그는 카아바(Kaaba)안의 하발이라는 아랍의 한 우상에게로 갔다. (이 일은 이슬람 이전의 일이다.)

그리고 압둘 뜻딸립이 그 우상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들을 지적하라. 그리고 그에게 그의 맹세를 얘기했고, 압둘라를 지적했다. 압둘 뜻딸립은 그를 죽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위원회를 열었고 말하기를: 압둘 뜻딸립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를 죽이겠다.

꾸레이쉬(Quraysh) 부족과 그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 주어라. 만약에 당신이 당신 아들을 죽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것이며 그러면 무엇이 남겠는가?’

“알 무기라 이븐 압둘라 이븐 아므로 이븐 마크줌”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를 죽이지 말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오!.

그의 아들들과 꾸레이쉬(Quraysh) 부족도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고 그와 같이 히자즈로 떠나라. 그곳에 점쟁이가 있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만약 그녀가 그를 죽이도록 당신에게 명하면 그를 죽이고 만약 당신과 그에게 맡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떠나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를 카이바르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타고 그녀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가 맹세했던 것도 말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돌아가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떠날 때 압둘 뜻딸립은 알라(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들이 그녀를 막떠나려 할 때 그녀는 “나에게 답이 왔다. 얼마의 보상을 할 것인가?”

그들이 얘기하기를: 열 마리의 낙타가 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서 그와 열 마리의 낙타를 가까이 놓고 그와 낙타들을 불에 달군 돌로 때리시오!. 만약 그에게서 나오면 당신들의 주님이 만족하실 만큼 낙타를 늘이고 만약 낙타에서 나오면 낙타를 죽이시오!. 당신들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당신들의 친구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카로 돌아와서 모였고 압둘 뜻딸립은 알라(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서 때리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나오자 낙타가 30마리가 될 때까지 압둘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백마리가 될 때까지 그에게서 나오고 나서 다시 때리자 낙타에게서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압둘 뜻딸립이여! 이제 끝났다. 당신의 주님께서 만족하셨다.

압둘 뜻딸립이 말하기를: 아니오. 진실로 세 번 더 때리겠다. 그리고 세 번을 더 때리자 모두 낙타에게서 나왔다. 그러자 압둘 뜻딸립은 낙타를 잡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아무 불만이 없었다.

2). 암둘 뭇딸립의 아들 암둘라의 결혼

암둘라가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셨다. 암둘라가 25세에 이르러 순수한 청년으로 성장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아주 참하고 좋은 주호라 집안의 와합 알 주호리야의 딸 아미나에게 청혼을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첫날밤에 임신하였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암둘라는 시리아 지방으로 대상을 떠났으나 돌아오는 길에 그의 사촌 알나자르들이 사는 도시에 들렸다가 병을 얻어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제 2 장

1. 코끼리 사건
2.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생일
3.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수유기
4.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유모 할리마
5. 가슴을 열었던 기적 :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폐수술
6.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어머니 아미나와의 생활
7.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조부 압둘忤딸립과의 생활
8.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삼촌 아부딸립과의 생활
9.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청년기 생활
10.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카디자(Khadijah)와의 결혼
11.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자녀들
12. 하나님(Allah)의 사도들은 왜 일부다처였는가
13. 힐풀 알 푸두울
14. 카아바(Kaaba) 재건립
15.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명상과 은둔생활
16. 사도 무함메드(Mohammed)에게 계시의 시작과 사도로서의 임명

1. 코끼리 사건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그분께 평화가)의 태어난 역사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하나 여기서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무함메드(Mohammed)의 탄생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코끼리 사건부터 언급하겠다. 그리고 알라(하나님)의 집과 알라(하나님)의 최후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를 따르는 이들의 구심점을 보호하기 위한 알라(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하겠다.

당시의 기적은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께서 건립한 카아바(Kaaba)가 알라(하나님)의 성스러운 집이며 그곳의 모든 것들이 보호 받으며, 그곳을 해하려는 모든 이들이 저주 받는다는것을 일러준다.

메카는 알라(하나님)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이며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메드(Mohammed)이 태어난 곳이고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를 경배하는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구심점이며 알라(하나님)의 완성된 율법의 집이다.

코끼리의 사건은 그 속에 몇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다. 이슬람 이전에 에티오피아 왕이 아르야뜨의 지휘 아래 거대한 군대를 예멘으로 보내 나즈란 백성을 둑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르야뜨의 군대가 예멘으로가 예멘을 정벌하고 단나와쓰 왕을 죽인 후 그 자신이 그곳의 왕이 되었다. 그때가 서기 527년에서 529년이라 전한다. 그 후 아르야뜨는 그곳에서 폭정을 행하였다.

그래서 당시 그와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정벌에 참여했던 장군들이 반기를 들었고, 그 중 아브라하 알 아쉬룸 하바시가 아르야뜨를 공개 결투에서 죽였다.

그는 예멘의 에티오피아 군대에서 우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그를 예멘의 신랑이라 불렀다. 그때가 서기531년이었으며, 그 또한 이전의 왕들과는 별다를 바 없는 폭군이며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왕이었다. 예멘의 신랑이라 불리는 그의 별명에 그는 자신이 아랍의 왕이 된 줄로 착각하였으며, 그 자신만이 아랍인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들의 경배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메카를 공격하여 메카를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의 모든 지역을 그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였다. 아랍인들이 신성시하고 순례하는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이 건립한 알라(하나님)의 신성한 집 카아바(Kaaba)를 그의 통치 아래 두고자 했으며, 그것으로 그는 아라비아 반도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리아와 접촉하여 같은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카아바(Kaaba)를 예멘으로 옮겨 갈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많은 이익을 얻으리라 믿었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카아바(Kaaba)가 아브라함(Abraham)의 주님이신 알라(하나님)의 집이며 알라(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매년 메카로 순례를 와서 아브라함(Abraham)과 이스마엘(Ismael)의 주님이신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돋독히 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업적 시장이 생겼으며, 문화적 모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카아바(Kaaba)가 없이 이러한 사회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구심점을 예멘으로 옮길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카아바(Kaaba)와 비슷한 것을 짓고 아름답게 장식하면 아랍인들이 그것의 아름다움과 발전된 기술과 건축에 감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교회를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바닥을 마블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벽에 색을 칠하고 대리석으로 장식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그 쪽으로 메카의 카아바(Kaaba)를 대신해서 매년 순례를 오도록 하였고, 아랍인들은 이것을 들었고 무척 화를 냈다.
카나나 부족의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더럽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탈출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하 알 아쉬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화가 나서 그는 즉시 메카의 카아바(Kaaba)를 파괴하기 전까지 그의 왕좌에 앉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코끼리를 앞세운 거대한 군대를 준비하고 왕궁 옆에 병영을 만들어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서 메카로 향했다. 아라비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주시하고 대응에 나섰다.
당시 그의 의도를 막고 전쟁을 한 것은 예멘 백성들이었다. 처음에 두나파린을 선두로 한 많은 예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하였다. 그리고 두나파린은 포로로 잡혔고 아브라하왕은 두나파린을 처행하려 할 때 두나파린이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나를 죽이지 마시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 두면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하왕은 그를 살려주었다. 당시 아브라하왕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그리고 아브라하왕은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메카로 향했으며, 쿠스암 부족의 땅에 당도하였

고, 아브라하왕을 거역하는 나필 이븐 하비브 알 쿠스아미가 이끄는 쿠스아미 부족과 나히쓰 두 부족과 전쟁을 하여 아브라하가 승리하고 나필 이븐 하비브 알 쿠스아미를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나필이 말하기를: 이 두 부족은 나의 손에 있으며, 당신께 복종할 테니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나필을 살려주고 그와 같이 동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거의 메카에 거주하였으며, 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열세였다. 당시 메카의 통치자는 하심의 아들 압둘못딸립이었다.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모여서 이 큰 문제를 상의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이 집은 알라(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보호 받는 곳이다. 그리고 그는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이 메카를 떠나 산 위로 올라가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은 아브라함(Abraham)의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알라(하나님)를 믿고 그분이 그분의 집을 보호하는 능력을 믿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당시 압둘못딸립의 생애를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명령에 따랐다.

아브라하가 메카 근교에 도착했고 그곳에 진영을 쳤다. 그리고 압둘못딸립의 낙타 2백 마리를 죽였다.

아브라하는 후나똬 알 후마이리를 메카로 보내 메카의 지도자를 청했다. 후나똬가 메카에 도착해서 메카의 지도자를 묻자 사람들은 압둘 못딸립이라고 했다. 그가 압둘못딸립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왕께서는 당신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이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오.

압둘 못딸립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 신성한 알라(하나님)

의 집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서 암둘뭇딸립은 후나똬와 같이 아브라하의 진영으로 갔다.

아브라하의 부관이 아브라하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여기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지도자가 문 앞에 와서 당신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가 바로 메카의 지도자이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산 정상에 음식을 놔두어 짐승들에게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암둘뭇딸립과 아랍 부족들의 부족장들이 같이 있었다. 당시 그가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하가 그를 봤을 때 그는 암둘뭇딸립의 출중한 인물됨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앓고 암둘뭇딸립을 그의 옆에 앉혔다. 그리고 통역관에게 말하기를: 물어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통역관이 그렇게 말하자, 암둘뭇딸립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해친 200마리의 낙타를 돌려주시오!.

아브라하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출중한 외모에 반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낙타를 변상해 달라 하고 당신들의 종교의 집인 카아바(Kaaba)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당신을 포기했다. 나는 카아바(Kaaba)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

암둘뭇딸립이 말하기를: 나는 낙타의 주인이고 카아바(Kaaba)의 주인은 하나님(Allah)이시다. 그 분이 당신으로부터 카아바(Kaaba)를 보호할 것이다.

아브라하가 말하기를: 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카아바(Kaaba)를 보호하거나 파괴할 권리가 없다.

암둘뭇딸립이 말하기를: 당신과 그 분(하나님)만이

카아바(Kaaba)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누가 카아바(Kaaba)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하는 암둘 뜻딸립에게 낙타를 돌려주었고 그는 메카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카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도록 명했다.

그리고서 그는 한 사람을 데리고 카아바(Kaaba)로 가서 알라(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아브라하는 메카로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고 가장 큰 코끼리를 앞세웠다. 가장 큰 코끼리의 이름은 마흐무드라 했다. (아랍인들은 코끼리를 마흐무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메카로 쳐들어 가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다)

아브라하가 메카로 진격할 것을 명했으나 코끼리들이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아 채찍으로 때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예멘으로 코끼리들이 돌아갔다. 야흐률이 일어나 말하기를, 저곳에는 알라(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리고 암둘 뜻딸립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였다. 카아바(Kaaba)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가 막을 것이다)

알라(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새들을 보냈고 각 새들마다 세 개의 돌들을 물고 와 아브라하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그들이 왔던 길로 모두 도주 하였고, 도중에 많은 수가 죽었다.

아브라하는 돌에 맞아 부상을 입고 그의 부하들이 그를 예멘으로 이송하였지만 산 아래에 도착해서 그의 사악한 죽음의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예멘의 왕좌는 그의 아들 야그羞이 이었으며, 그때가 세기 570-571년 이었으며, 히즈라(Hijra)전 53년이다. 그 후 에티오피아의 군대는 예멘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다. “싸이프 븐 자이잔”이라는 왕의

주도하에 예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에티오피아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 처단하였다. 그 후 압둘 뜬랄립과 일련의 사신들이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예멘에 갔었다.

위의 이야기를 코란(Quran)의 코끼리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 했는가? 하나님(Allah)은 그들에게 새 떼를 보내어 모래와 흙으로 된 돌멩이들을 던지시니 그들은 다 굽아 먹어 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도다] 필장 1-5아야(절).

그 사건이 있을 때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 (Mohammed)께서 태어나셨다.



주도하에 예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에티오피아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 처단하였다. 그 후 압둘 뭇랄립과 일련의 사신들이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예멘에 갔었다.

위의 이야기를 코란(Quran)의 코끼리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 했는가? 하나님(Allah)은 그들에게 새 떼를 보내어 모래와 흙으로 된 돌멩이들을 던지시니 그들은 다 잡아 먹어 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도다] 필장 1-5아야(절).

그 사건이 있을 때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께서 태어나셨다.



3.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의 수유기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께 젖을 먹였던 분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들은 무함메드(Mohammed)의 어머니들이시다.

- 1). 처음 무함메드(Mohammed)에게 젖을 먹였던 분은 친어머니이신 “와합 알 주흐리야”의 딸 아미나이다.
- 2). 그리고서 “싸우비야 알 아슬라미야”이고
- 3). 다음에는 “아이만 바라카트 알 하바시야”이고
- 4). 야클루드의 딸 아티
- 5). “아티카 빈트 힐랄 이븐 날리호”
- 6). 아티카 빈트 파흐르
- 7). 아티카 빈트 알 아우까스
- 8). 할리마 알 싸으디야 순이다



4.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유모 할리마

상기의 이름들이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께 젖을 먹였던 분들이며 그들의 이름들은 알라(하나님)의 사도께 젖을 먹인 것으로 인하여 고귀해졌다.

통상적으로 아랍에서는 아들을 낳게 되면 수유를 위하여 지방으로 보내 그곳의 언어와 풍습을 배우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육체를 단련하도록 하였다. 알라(하나님)께서는 알라(하나님)의 최후의 사도이신 무함메드(Mohammed)의 수유를 할리마 알 싸으디야에게 받도록 하였다

할리마는 그의 남편과 싸으디 부족의 몇몇 사람들과 수유를 하기 위하여 메카를 떠났다. 같은 해에-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께서 태어났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 때가 매우 궁핍한 해였으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다. 나는 당나귀를 타고 커다란 낙타를 데리고 나섰다. 진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굶주림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나마 우리에게 있던 차를 마시기 위해 모였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오랫동안 갔었다. 그리고 서로 분산되어 메카에서 수유할 아이를 찾았다.

그녀에게는 알라(하나님)의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무함메드(Mohammed)이 유복자라는 것을 듣자 매우 마음이 내키지 않아 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얘기하기를 유복자는 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나 이외에 다른 여자가 그의 수유를 위해 남지 않았다.

‘진실로 나는 이 유복자를 두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소. 이 아이를 내가 맡겠소.’라고 남편에게 말하자, ‘당신에게 좋은 일이오. 알라(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데리고 여행 길에 올랐다. 그리고 내가 그를 나의 방에 데리고 들어와 젖을 먹였으며, 충분히 젖을 먹은 후 잠이 들었다. 우리는 그가 잠들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굶주림과 갈증으로 허기졌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낙타에게 가서 젖을 짜가지고 와 나와 같이 마시고 편안한 잠을 잤다.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 이웃들이 말하기를, 할리마여! 정말로 당신은 축복 받은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녀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도 그것을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당나귀가 앞지를 수 없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비 두 아이브의 딸이여 이 당나귀가 당신이 타고 왔던 당나귀가 맞는가?

그녀가 말하기를: 맞다.

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에게 관계된 것이다.

훌라이마가 말하기를: 그리고서 바니싸으디 땅에서 우리의 집으로 앞장서서 갔다. 이처럼 메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나의 양이 나와 같이 갈 때 우리에게 라반을 주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마셨었다. 그만큼 많은 라반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양들에게도 라반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알라(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또한 그가 아이 티를 벗어날 수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알라(하나님)께서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메드(Mohammed)를 어릴 적부터 보살펴 주셨으며,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다.

5. 가슴을 열었던 기적 :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폐수술

할리마가 무함메드(Mohammed)를 데리고 메카의 바니싸우디로 돌아왔다. 메카로 돌아올 때 무함메드(Mohammed)에게는 무함메드(Mohammed)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던 형제나 친구를 동행하지 않았다. 무함메드(Mohammed)의 나이가 4세에 이르렀을 때 부카리 하디스(Hadith)에 언급된 것처럼 그의 가슴을 갈라 열었던 일이 있었다.

부카리 하디스(Hadith)에 언급하기를: 아나스가 전한다. 아이들과 놀고 있는 알라(하나님)의 사도께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눕힌 다음 심장이 있는 가슴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응혈 덩어리를 꺼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이것이 사탄의 몫이다. 그리고서 그것을 금으로 된 양동이에 담긴 잠잠 물로 씻었다. 그리고서 다시 제자리에 넣어 주었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유모에게 가서 무함메드(Mohammed)이 살해 당했다고 말했고 우리가 그를 보니 흠뻑 젖어 있었다.

할리마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를 데리고 숨었으며, 그의 아버지(그녀의 남편)가 말하기를: 이렇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나는 두려워했었다. 또다시 불행이 오기 전에 그를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께 갔다.

그녀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냐? 나는 이 아이가 당신들과 같이 지내기를 원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는 다 컸다. 그리고 그에게 생길 일이 두렵고 해서 그를 당신께 데리고 왔다. 그녀가 말하

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냐? 당신의 얘기를 믿도록 해주시오!.

홀라이마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가 그의 얘기를 알려줄 때 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그에게 사탄이 들었을까 두렵나? 진실로 사탄은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 나의 아들은 특별한 아이다. 내가 그를 임신했을 때, 진실로 그는 무겁지도 않았으며 또한 놓을 때, 힘들지도 않았었다. 나는 그를 낳았고 그를 땅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Allah)께 인도하도록 그의 머리를 하늘로 향했고,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오!.

가슴을 열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일이 사도님 생애에 두 번 일어났다.

1). 첫 번째는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하디스 쇠히흐 (Hadith Sahih)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알 다리미’와 “아흐말”이 전하고 ‘알 하킴’이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맘(Imam) 알 다하비”가 그것에 동의했다.

2). 두 번째는 계시를 받으신 이후이며 승천하시기 이전이다. 당시 알라(하나님)의 사도님의 연세는 50세였으며, 이것의 전승은 올바르고 근거 있는 것이다.

이맘(Imam) 알 니사이가 전하고 이맘(Imam) 알 부카리가 그의 하디쓰에서 전하며, 이맘(Imam) 무슬림이 말리크이븐 쇠드 쇠아가 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승천하시던 날 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비몽사몽간에 돌 위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젖꼭지와 겨드랑이 사이를 갈랐다. 그리고
내 심장을 꺼낸 후 신앙으로 가득한 금동이를 가져와 내
심장을 췄은 후 다시 제 자리에 넣었다.”



6. 무함메드(Mohammed)의 어머니 아미나와의 생활

그가 할리마 알 싸으디야에게서 4년을 보낸 후 그의 어머니인 와합 알 주흐리야의 딸 아미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곁에서 살면서 그는 그녀의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전통에 따른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녀에게는 외동아들이었고 그의 나이가 6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메디나에 있는 그녀의 남편 압둘라의 무덤과 그의 사촌인 알 나자르 사람들을 방문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아들 무함메드(Mohammed)과 여종 움무 아이만과 같이 동행했으며, 외동아들인 유복자 무함메드(Mohammed)에게 그의 아버지를 알려주려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알 나자르 사람들에게 무함메드(Mohammed)를 알리려 했다. 그녀가 메디나에 도착하고 그녀의 남편 무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서 메카로 돌아오는 길을 나섰는데, 돌아오는 첫머리에 그녀는 심한 병에 걸려 알 아부와이라는 장소에서 사망하였으며, 그때가 서기 576년이었으며, 무함메드(Mohammed)이 탄생한지 6년이 지난 해였다. 이래서 무함메드(Mohammed)은 고아가 되는 신세가 되었고 여종 움무아이만이 그를 데리고 메카에 있는 그의 조부인 압둘 뜻랄립의 집으로 행했다. 메카에 도착했을 때까지 무함메드(Mohammed)은 아무일 없었고, “이맘 알 주흐리”가 “아쓰마 빈트 라홈”이 전하는 것을 말하기를:

그녀가 말하기를, 알라(하나님)의 예언자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여섯 살밖에 안된 어린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하기를,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죽고, 모든 새 것은 바래진다. 나는 죽지만 나의 기억은 남고 선행을 남겼으며, 청결하게 태어났던 것이며 그리고 죽는 것이다.’



7. 무함메드(Mohammed)의 조부 압둘 뭇 딸립과의 생활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메드(Mohammed)께서 고아가 되게 하셨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잃고 아버지의 관심도 받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알라(하나님)의 관심만이 있었다. 그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교육을 받았으며,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관대하고 자비롭고, 애정이 넘치며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고아들을 위한 사랑을 베푸셨다. 당시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 모습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여섯 살 되던 해에 어머니까지 잃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알라(하나님)께서 정해 준 운명이었으며, 메카의 지도자이신 그의 조부 압둘 뜻 딸립에게 교육받고 키워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당시 그의 조부는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는 매우 자비롭고 애정이 많았으며, 그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도력과 학식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의 손자 무함메드(Mohammed)께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무함메드(Mohammed)를 양육하였다. 알라(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그는 순탄하게 자랐고 그의 조부는 그에게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다. 압둘 뜻 딸립은 그를 매우 사랑했으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에게 어렸을 적부터 올바른 판단과 남자로서의 예절 등을 가르쳤고 많은 아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자나깨나 어디를 가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그의 조부 뒤를 따라 다녔다.

당시 압둘 뜻딸립의 침대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었으나 그가 일이 있어 외출할 때는 무함메드(Mohammed)이 그곳에 앉곤 했다. 당시 그의 삼촌들은 압둘 뜻딸립에 대한 존경심으로 무함메드(Mohammed)이 그곳에 앉지 못하도록 했지만 압둘 뜻딸립이 그들을 막았다. 그리고 무함메드(Mohammed)이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구속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시 압둘 뜻 딸립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불러라. 진실로 그에게는 특별한 곳이 있다. 그리고서 침대에 앉아서 무함메드(Mohammed)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꾸레이쉬(Quraysh) 부족장들은 무함메드(Mohammed)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하였다.

당시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어렸었지만 말과 행동이 사리에 맞았다. 그가 말하면 마치 홀륭한 판사가 말하는 것처럼 조리있었다. 그가 회의 석상에 앉아 있으면 마치 어른처럼 보였으며, 결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그에게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고 존경하였으며, 압둘 뜻딸립 또한 그를 보호하였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알라(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그의 아들 아부 딸립(Abu Talib)에게 그를 돌볼 것을 유언하였다.

아부 딸립(Abu Talib)은 무함메드(Mohammed)의 부모 양쪽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다. 압둘 뜻딸립은 120세가 되던 해에 죽었으며, 무함메드(Mohammed)은 그의 조부 압둘 뜻딸립의 손에서 2년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삼촌인 아부 딸립(Abu Talib)의 집으로 옮겼다. 당시 무함메드

(Mohammed)의 나이는 8세였다.

예언자 무함메드(Mohammed)의 조부는 무함메드(Mohammed)를 애정과 평화로 손자를 대했으며, 어렸을 적부터 그의 성품을 알고 계셨다. 그는 언제나 알라(하나님)의 보살핌이 그의 손자에게 깃들도록 기원했으며, 암둘 뜻딸립은 그의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무함메드(Mohammed)이라 불렀다. 이러한 것이 알라(하나님)로부터 내려진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생소하게 생각해서 말하기를: 조상들의 이름들과 생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가 하늘에 계신 알라(하나님)를 찬미하고 이 땅 위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원한다.

암둘 뜻딸립이 세상을 뜨자 슬픔이 무함메드(Mohammed)를 감싸고 무함메드(Mohammed)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주었다. 그는 왜 알라(하나님)께서 이런 운명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이러한 운명을 겪으면서 알라(하나님)의 사도와 예언자로서 알라(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함메드(Mohammed)은 그의 조부의 집에서 그의 삼촌 아부딸립의 집으로 이주했으며,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당시 아부딸립은 무함메드(Mohammed)를 매우 아꼈지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8.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삼촌 아부딸립과의 생활.

아부딸립은 무함메드(Mohammed)의 친삼촌이다. 그야 말로 압둘 뜻딸립의 아들 중 집안을 가장 많이 부양하고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다. 그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따뜻하고 성품이 고귀하고 또한 구레이쉬(Quraysh) 부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압둘 뜻딸립은 그의 손자인 무함메드(Mohammed)를 그에게 맡겼었다. 그래서 그는 무함메드(Mohammed)에 무척 관심을 갖고 돌봐줬다. 그리고 무함메드(Mohammed)의 성품을 보고 매우 사랑하였으며, 그의 또래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매우 좋은 행동들을 보고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특별히 돌봐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을 소홀히 해서 당시 다른 귀족 집안 아이들처럼 선생에게 보내지 않았었다. 그리고 아부딸립은 손님이 오는 것을 좋아했다. 손님을 접대하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즐겨해서 무함메드(Mohammed)은 그의 삼촌 집에서 사촌 형제들과 같이 차별 없이 자랐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서 그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었다. 당시 아부딸립은 무함메드(Mohammed)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를 밤이든 낮이든 결코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나는 그에게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그에게는 놀랍게도 매우 자상하고 향기롭고 그의 언행에서 매우 훌륭한 점들을 느꼈다. 며칠 전 밤에 나는 그가 침대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를 불렀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 삼촌!” 그는 집의 예배실에 있었다.

당시 우리는 먹고 마실 때 찬미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는 ‘유일하신 알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먹기 시작했다. 그가 알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린 후 그는 매우 그 것에 감사했으며, 그가 거짓말하거나 웃거나 무지하거나 아이들이 노는 것에 같이 놀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삼촌 아부딸립이 보살펴 줄 때 어린 무함메드 (Mohammed)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겨우 아홉 살에 지나지 않았으며, 어렸을 적부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보살핌을 받았었다. 그는 당시 그의 삼촌이 말한 것처럼 집의 예배실에서 알라(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알라(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모든 것을 알라(하나님)께 찬미하였다.

“이븐 아싸키 잘하마 이븐 아라파뜨”가 전하는 것을 말하기를: 메카에 갔었는데 그들은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 말하기를: 오! 아부딸립 이여! 와디가 메마르고 기근이 들었다. 기근을 빨리 없애다 오! 그래서 아부딸립은 구름을 부르는 한 사내와 같이 나섰다. 아부딸립은 카아바(Kaaba)에 등을 대고 섰다. 그 사내는 그의 손가락을 낮추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 저기서 구름이 나타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며, 물이 차 오르며 땅이 풍요로워졌다.

9.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청년기 생활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좋은 것만 받아 들이시며 모든 사도들에게 좋은 음식들만 먹도록 명령하셨고 선행을 베풀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일해서 얻은 것들을 먹었다. 예언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Abraham)(그분께 평화가)께서 양을 치셨으며 모세(그분께 평화가)께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무함메드(Mohammed)(그분께 평화가)께서도 청결한 음식을 얻기 위해 직접 양을 치셨고 그의 육신에서는 할랄(허용된 것)이 넘쳤다. 하디쓰에서 언급하기를 그분(그분께 평화가)께서는 초창기에 양을 치셨으며, 그 이후에 상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디쓰에서 언급되기를: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메카 사람들을 위하여 양을 치셨다.

이븐 알아시르가 전하기를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자힐리야(Jahiliyyah)(무지)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두 번 시도했지만 모두 알라(하나님)께서 나와 그들 사이를 막아주셨다. 그 후 나는 그들이 나에게 감복했을 때까지 결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메카의 높은 지대에서 나와 같이 한 사람이 양을 돌보고 있었다. 내가 양들을 돌보며 메카로 들어갈 즈음 젊은 청년들이 하는 농담을 주고 받을 때 그가 말했다. “시도해 봐라!” 그래서 나는 메카의 첫 번째 집에 당도할 때까지 떠나와 버렸고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소리가 무

엇이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곳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데, 알라(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막아 잠이 들었으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었다. 그리고서 다음날 저녁 메카에 들어갔는데 전 날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그 못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알라(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은총 때문이다.

그리고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쿠와일라드의 딸 카디자(Khadijah)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븐 알아시르가 말하기를, 당시 카디자(Khadijah)는 재산이 많은 귀족의 여인으로 남자들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을 시켜서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였다. (이것이 이슬람 규범상 동업에 해당된다. 그것은 두 사람이 동업하여 한 사람은 돈을 대고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계약했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다.)

알라(하나님)의 사도님의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신의를 알고 그의 좋은 성품과 다른 아랍인들이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무함메드(Mohammed)께 사람을 보내 그녀가 돈을 대고 시리아의 사업에 동업을 제의했으며,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무함메드(Mohammed)께서 그 제의를 수락 했으며, 그녀의 비서와 함께 대상을 떠났다.

그는 시리아로의 장사를 결코 혼자 떠나지 않고 메카 상인 무리 즉 대상들과 같이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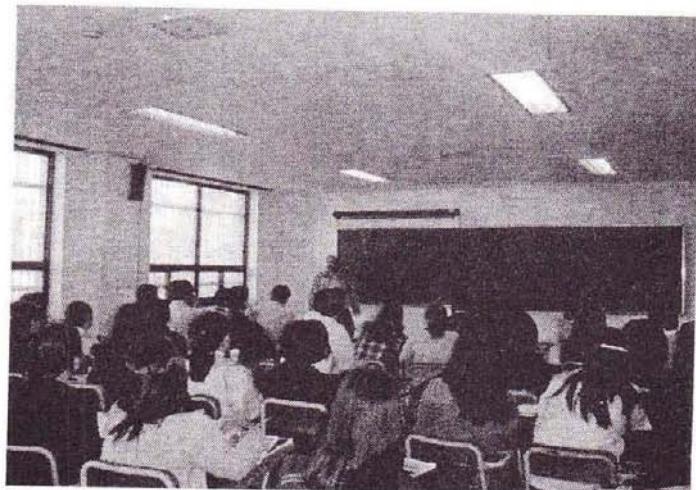
10.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카디자(Khadijah)와의 결혼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카디자(Khadijah)와 같이 사업에 전념 하였고, 그녀는 그분이 신의가 깊고 믿을 수 있는 분이며, 그녀에게 적합한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40세의 나이가 되고 무함메드(Mohammed)께서 25세의 나이 즉 두 사람이 15년 차이가 났었다. 그녀는 꾸레이쉬(Quraysh) 부족 중 귀족 출신이며 매우 전통있고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다.

그녀는 결혼 경력이 있었는데 “지라라 알 따미미”의 아들 “아부 할라”와 결혼을 했었고, 그 후 “아이즈 알 마크주미”의 아들 아티끄와 결혼을 해서 힌디라는 딸을 낳았었다. 그녀의 남편 아티끄가 죽은 후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었지만 그녀는 거절했었고 오로지 무함메드(Mohammed)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어 그녀의 친구 나피싸를 보내 중매를 서도록 했고, 그녀가 카디자(Khadijah)의 생각을 무함메드(Mohammed)에게 얘기해 주고 중매를 성사시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함메드(Mohammed)의 삼촌 아부딸립이 그녀에게 무함메드(Mohammed)를 위해 청혼을 했다. “진실로 무함메드(Mohammed)는 다른 꾸레이쉬(Quraysh)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청년이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흠이지만 재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니 청혼을 받아 주시오!.” 카디자(Khadijah)의 삼촌이 청혼을 받아 들여 결혼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그녀

에게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해서 가장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고 카디자(Khadijah) 또한 그를 성심 성의를 다하여 내조하였다

그녀는 무함메드(Mohammed)께서 다와(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조력자였으며, 여자들 중 가장 먼저 그를 믿은 사람이다. 그녀는 “마르얌 알 까브뛰야”에게서 태어난 무함메드(Mohammed)의 아들 아브라함(Abraham)을 제외한 모든 아이를 낳았었다. 카디자(Khadijah)는 무함메드(Mohammed)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며,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었다.



11.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의 자녀들

그분께는 세 아들과 네 딸들이 있었다.

1). 까심: 그는 장남이며 아부 알 까심이라 불렸지만 하루 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2). 압둘라: 그는 따입과 봐히르라!고 불렸다. 한편으로는 따입 봐히르는 카디자(Khadijah)가 낳은 사도님의 두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압둘라는 어렸을 때 사망했다.

3). 아브라함(Abraham): 메디나에서 태어나서 3년밖에 살지 못했다. 그는 알라(하나님)의 사도님 보다 3개월 먼저 일식이 있던 날 메디나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어머니는 “마르얌 알 까브뛰야 알 마스리야”이다.

그분의 딸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이납(Zaynab): 그녀는 카디자(Khadijah)의 조카인 “아부 알 아시 이븐 알라비으”와 결혼했고 아부알아시는 오마르(Umar)가 칼리퍼(이슬람 국가 대장)로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알리를 낳았는데 그는 젊어서 일찍 죽었다. 그리고 우마마를 낳았었는데 그녀는 파띠마(Fatima)가 죽은 후 알리본 아부딸립과 결혼을 했었고 자식이 없었다. 알리본 아부딸립이 죽자 그녀는 알 무기라 이븐 누우팔 이븐 알 하리스본 압둘 뭇딸립과 결혼을 했었다. 그와의 결혼 생활 도중 사망하였다.

2). 루꺼야: 카디자(Khadijah)의 딸이며 오스만 이븐 압판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사도님 생전에 바드르 전쟁 3일 후에 죽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7세가 되던

해에 죽었다.

3). 파띠마(Fatima): 그녀가 딸들 중 가장 많은 자손을 낳았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6개월 후에 죽었다. 그녀는 사촌 “알리 이븐 아부딸립”과 결혼해서 하산과 후세인 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산과 후세인의 자손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렸을 때 죽었지만 무흐신이라는 아들도 있었다. 또한 파띠마(Fatima)는 딸 자이납(Zaynab)과 움무 쿨숨(Umm Kulthum)을 낳았으며, 자이납(Zaynab)은 “압둘라 이븐 자으파르 이븐 아부딸립”과 결혼해서 알리를 낳았다. 그리고 움무 쿨숨(Umm Kulthum)은 “오마르 이븐 알 카땀(Umar Ibn Al-Khattab)”과 결혼하였다. 그녀의 아버지인 “알리 이븐 아부딸립”이 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움무 쿨숨(Umm Kulthum): 카디자(Khadijah)의 딸이며 막내였다. 그녀의 사촌인 “우트봐 이븐 아부라함”이 그녀의 아버지인 사도님께 청혼을 하였으나 파기되고, 그녀의 언니인 라끼야가 죽은 후 “オス만 이븐 압판”과 결혼하였다.

12. 하나님(Allah) 사도들은 왜 일부다처였는가!

일부다처제로부터 얻어지는 교훈, 결혼은 신이 정해 주신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을 남과 여로 구분 지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을 땅 위에서 물질적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몇몇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천성을 거부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철학자 마니는 이세상의 물질적 타락과 악을 줄이기 위하여 독신생활을 주장하였으며, 빛이 어둠과 섞이는 것은 사악한 것이니 어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하고 종족보존을 끊어 빛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리고 철학자들 중에는 조건 없이 결혼을 허락하고 권장한 학자들도 있었다. 이 주장을 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A. D 487년에 태어난 무즈닥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갈망한다면, 샤흐르싸타니가 말하기를, 무즈닥은 그 여자에게 허락하고 재물을 갖는 것을 허용했으며, 사람들이 물과 불과 목초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협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독교 학자들은 올바르고 정당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결론이 없어도 남녀가 만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또한 여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의 법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며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을 거부하는 것이

다.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으며, 결코 정해진 법칙이 없이 혼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올바르고 숭고한 법칙을 정해 주셔서 남녀가 모두 똑같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하셨다.

남녀가 만나는 것 또한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알라(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고서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혼을 보여주었고 알라(하나님)께서 결혼을 원치 않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을 제외한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이 결혼을 하였다. 예수께서는 알라(하나님)의 길에서 다와(선교)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의 생애 또한 그의 적인 유태인들의 펁박과 억압으로 가득 찼으며, 지상에서의 그의 생애 또한 매우 짧아 33세로 승천하였다. 그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 모두가 부인이 한 명 이상 이었으며, 그것 또한 알라(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이었다.

아브라함(Abraham)께서는 셋 또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야곱 또한 네 명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다. 그리고 무함메드(Mohammed, 그분께 평화) 사도께서도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들께서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을 한 것은 인간의 동물적 욕구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시에 일부다처제의 법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알라(하나님)에게로 다와(선교)를 위한 방법이었다.

여기서 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 1). 일부다처제의 허용
- 2). 일처다부제의 금지

알고 있듯이 알라(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은 창조하셨고 각자의 본분에 맞게 육신을 창조하셨어서, 남성을 여성에게 주고 여성은 그것을 받아 임신을 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서 받는 자는 자신이 받는 것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남자가 여자의 자궁 내에 정액을 심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정액이 여자의 자궁 내에 착상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 서서히 아이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간다. 알고 있듯이 한 여자의 자궁 내에 많은 남자들이 정액을 남기게 되면 그들 중 누가 임신을 시켰는지 정확히 규명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계보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도록 했지 그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이것 때문에 알라(하나님)께서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셨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행하는 자들은 진실로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만약 여러 여자들의 자궁 속에 한 남자가 씨를 뿐린다면 그의 혈통은 결코 섞인 것이 아니며, 자식이나 아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현재의 기독교 사회를 보면 여자가 정신적인 결혼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 그것은 임신을 낳고 단지 생각만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추측하지만 남자는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사회에서 많은 사생아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알라(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내려 주셨던 법에 위배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알라(하나님)께서 예수께 내려 주셨던 법은 그분 이외의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내려 주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 여자에게 많은 남자가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여러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함메드 가잘리(Mohammed Ghazali)가 그의 책 “피끄흐 씨라(Fiqh Al-Sira)”에서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 명의 여자를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읽어 주었다. 왜 남자들이 여러 부인들을 만드느냐 여자들은 여러 남편을 만들지 않는데?

나는 질문을 한 이들 모두가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추악한 것을 보았다.

이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녀가 서로 관계를 갖는 가장 큰 목적은 순결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들이 찾아 오는 여자의 집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여자에게 있어서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 여자의 위치는 임신을 하는 것이지 임신을 시키는 위치가 아니다.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은 오래 전부터 허용되어 왔던 관행이며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처럼 그것이 방법과 명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부인처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부인은 오직 한 명이고 나머지 여자들은 간통을 하는 여자 친구일 뿐이다.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을 허용했지 여자 친구들을 갖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Abraham)과 야곱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예

언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무함메드 가잘리 (Mohammed Ghazali)”가 그의 책 “피끄흐 씨라(Fiqh Al-Sira)”에서 언급하기를, 사회적 법칙과 경제적 충족은 인간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였거나 무지하여 소홀히 하였다면 그 결과는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부양하고 사회적 환경이 무난하냐? 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만약 무지하여 소홀히 했다면 여자에게 고통과 불평을 안겨 줄 것이다.

여기서 남녀 숫자의 비율에 주목하자 만약 똑같을 수 있고 두 성별 중 한 쪽이 많을 수 있다.

만약 똑같다면 또는 여자의 수가 더 적다면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짹 지워지도록 방치하되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몫에 만족하거나 불만을 갖지만 만약 여자의 수가 많다면 다음의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 1). 그들 중 적당 수를 죽을 때까지 결혼을 금지시키거나
- 2). 부인 이외의 여자 친구를 만들어 간통을 인정하거나
이것은 올바른 종교와 올바른 사회에서 모두 경멸하는 방법이다.
- 3). 여러 부인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자에게 남자를 금지시키는 것을 여자들이 원치 않을 것이며 또한 정당하지 않은 침대 위의 생활을 여자들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직 남은 방법은 하나뿐인 일부다처주의가 현명한 방법이며,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올바른 계보를 승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물질적 재산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많은 유산을 상속 받고 어떤 이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삶의 기본 요소를 많이 상속 받은 이와 전혀 그렇지 못한 이 사이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올바르지 않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에게는 허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한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반면 만약 부인이 나이가 많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병들고 약하다면 왜 이러한 결점을 문제삼지 않느냐? 진실로 과거에는 이러한 여인들이 남편의 보호 아래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다른 여자가 와서 부인이 의무를 다했었다. 그리고 알라(하나님)께서는 그와의 다른 것에 대한 즉 도박과 같은 종류를 즐길 것을 엄격히 금하셨으며, 오로지 부인들에게 올바르고 정의롭게 대하도록 하였다.



13. “힐풀 알 푸두울”

예멘의 자비드의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메카로 왔다. 그의 물건을 “알아시 이븐 와일이”라는 꾸레이쉬(Quraysh)의 귀족중의 한 사람이 샀지만 그의 권리를 묵살하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는 꾸레이쉬(Quraysh) 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도움 요청은 거절 당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해서 그는 메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해 일어났고 모두들 “압둘라 이븐 자드안”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를 위해 알라(하나님)의 길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가 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펫박 받는 사람을 위해 그들이 나서기로 했다. 이 모임을 “힐풀 알 푸두울”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선행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서 그들은 알아시에게 갔다.

그리고 알자비디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주장하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댓가를 지불하였고, 당시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계시를 받으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압둘라 이븐 알자드안”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에 참석하였다. 만약 그 모임이 이슬람이 오고 난 후에 있었다 해도 나는 참석했을 것이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펫박 받는 사람들을 억압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당시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정의와 억압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승리하신 것이다.

14. 카아바(Kaaba)의 재 건립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아바(Kaaba)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알라(하나님)의 집이다.

알라(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아브라함(Abraham)과 그분의 아들인 이스마엘(Ismael)로 하여금 황량했던 아라비아 반도 땅 위에 카아바(Kaaba)를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그 후 카아바(Kaaba)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작용과 노후 때문에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었고,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 시대에 홍수로 카아바(Kaaba) 한쪽이 기울어지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메카의 모든 원로들이 모여서 카아바(Kaaba)의 재건축에 관하여 토의한 결과 그들은 카아바(Kaaba)를 재건축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카아바(Kaaba)를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만약 카아바(Kaaba)를 철거하게 되면 알라(하나님)께서 노여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븐 이스학이 말하기를: 사도님께서 35세에 이르렀을 때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카아바(Kaaba)를 재건축 하기로 했다. 당시 이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지붕을 올리고 다시 벽을 세우고자 했었다.

그때 “몰라이흐 이븐 아므로” 부족의 사람이 제단의 보물을 훔쳤었다.

이븐 히샴이 말하기를: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 그의 손을 잘랐다. 그리고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그것을 훔친 자들이 제단에 갖다 놓을 것을 주장하였다.

“아부와합 이븐 아므로 이븐 아이드 이븐 압두 이븐 이므로

란 이븐 마크줌”이 그것을 카아바(Kaaba) 안에 가두는 것을 얘기했다. 원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그의 손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꾸레이쉬(Quraysh) 부족이여, 카아바를 짓는 데 청결한 것 외에는 넣지 마라. 그곳에 절대로 불결한 댓가를 들여 놓지 마라. 어떤 부정한 이익이나 폭력에 의해서 얻어진 어떤 것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븐 이스학이 말하기를: 아부와합은 사도님 아버님의 외삼촌이다.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카아바(Kaaba)를 분할해서 압두마나프 부족과 “주호라 이븐 루아이”를 위해 문을 만들었다. 그리고서 꾸레이쉬(Quraysh) 부족은 그 벽이 무너질까 걱정되어서 새로 다시 건축하였다.

“알왈리드 이븐 알 무기라”가 말하기를: 나부터 카아바(Kaaba)를 철거하겠다 결심을 하고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우리는 선을 위하여 일하니 노여워 마십시오!. 그리고서 양기동부터 철거하였다. 그날 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하기를: 만약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철거하지 않고 예전의 그대로 카아바(Kaaba)를 놔두겠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알라(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철거를 하겠다. 다음날 아침 알왈리드는 평상시처럼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철거를 시작해 아브라함(Abraham)이 세웠던 기초가 있는 곳까지 철거하였다. 낙타 등 같은 녹색 돌 있는 곳까지 도달하자 여러 사람이 그것을 움직였다.

이븐 이스학이 말하기를: 카아바(Kaaba) 철거 작업을 했던 꾸레이쉬(Quraysh) 부족 중 한 사람이 쇠지레를 돌 사이 즉 아브라함(Abraham)이 세웠던 첫 번째 기초 사이에 넣고 들어올리려 힘을 주었다. 그 돌이 흔들리자 그 여파로 메카가 흔들리자 그들은 그 일을 그만 두었다.

이븐 이스학이 또 말하기를: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이 카아바(Kaaba)의 기둥 밑에서 앗시리아어로 된 책을 발견 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 유태인이 와서 그 책을 읽었다. 그 내용은: 나는 알라(하나님)로 천지를 창조하는 날이 메카를 창조하였고, 태양과 달을 만들었으며,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채우셨다. 이곳은 그 백성들에 대한 나의 축복인 물과 라반이 넘쳐서 이곳의 나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하다.

당시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서로 분담해서 카아바(Kaaba) 건립에 필요한 돌들을 모았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기둥을 세워 나갔지만 서로 흑석을 올리려고만 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전쟁 준비까지 했다. 압둘다르 부족은 그릇에 피를 채우고 “아디 이븐 카압 이븐 루아”이 부족과 동맹을 맺어 피를 담은 그릇에 그들의 손을 담그고 혈맹을 맺었다. 꾸레이쉬(Quraysh) 부족들은 그 상태로 4-5일이 지나고 난 후 마스진(masjid)(성원)에 모여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카아바(Kaaba)의 흑석을 제자리에 올려 놓는 일을 하는 일로 서로 적대적이 되었다.

그러나 “아부움미야 이븐 알무기라 이븐 압둘라 이븐 오마르 이븐 마크줌”이 일어나 말하기를, 꾸레이쉬(Quraysh) 부족의 지도자들이여 그 일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견이 다르니 이 마스진(masjid)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말기자. 그들은 이 말에 동의 했고 그 사람은 바로 무함메드(Mohammed)이었다. 그들이 무함메드(Mohammed)임을 알자 말하기를: 신의가 있는 무함메드(Mohammed) 이 사람 이야 말로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논쟁이 끝나고 그 소식을 무함메드(Mohammed)에게 알리자 무함메드

(Mohammed)이 말하기를: 내게 옷을 가져와라.

그에게 옷을 가져다 주자 그는 흑석을 가져다 그 옷 위에 놓고 말하기를 각 부족장들이 옷 한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시오!. 그들이 옷을 들어 올려 흑석의 자리까지 오자 모하메드(Mohammed)께서 흑석을 들어 제자리에 놓았다. 이 현명한 판단으로 사도님께서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다.

당시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께서 카아바(Kaaba)의 재건축에 참여하셔서 직접 돌을 쳐서 날랐다. 당시 그의 협력은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다.

알 수하일리가 전하기를, 카아바(Kaaba)의 건립에 관한 이 이야기가 하디스 쇠히흐(Hadith Sahih)에 언급되어 있다. 당시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돌을 나르셨고, 당시 사람들은 허리를 감은 천을 어깨에 걸쳐서 돌을 날랐다. 알라(하나님)의 사도 또한 어깨로 돌을 쳐서 날랐는데 그의 허리 천은 매우 짧았다.

그때 암바스가 말하기를: 형제여! 만약 당신의 허리 천을 당신 어깨에 걸쳐서 돌을 나르면 어떠냐?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지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내 허리 천은 짧다.

그리고 일어나 돌을 그냥 옮겼다. 다른 하디스(Hadith)에서 언급하기를 그가 넘어졌을 때 암바스가 일으키며 물기를,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그래서 그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었다는 것을 말해줬다. [무함메드(Mohammed)이여! 내가 그대의 허리 천을 짧게 했도다.] 그 소리는 알라(하나님)의 천사 소리였으며,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사도와 예언자로 교육시키기 위한 관심이었다.

15.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명상과 은둔 생활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신성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우상이나 잡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알라(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Abraham)의 종교를 선택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알라(하나님)를 진실로 경배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은둔생활을 하면서 알라(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돋우기 하였다.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특히 밤에 홀로 명상에 잠기는 것을 자주 하였으며, 그러한 것을 그의 삼촌 아부 딸립(Abu Talib)이 자주 보았다.

그가 밤에 잠자리에 없어서 그를 부르면 알라(하나님)를 염원하고 예배 드리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많은 시간을 알라(하나님)를 생각하고, 혼자서 인간들과 떨어져 명상에 잠겼으며, 우상들에게 결코 절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알라(하나님)께서 그를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으며, 그의 생애에 결코 나쁜 행위가 없이 선하게 살도록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알라(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선행을 하며, 언행에 믿음이 가도록 하였다. 그는 메카 근교에 있는 히라동굴(Cave of Hira)에서 알라(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하고 알라(하나님)에 대한 염원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다. 그는 아브라함(Abraham)의 종교를 따랐고 알라(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본능을 지켰다.

그는 명상을 끝내고 집으로 갈 때면 항상 카아바(Kaaba)의 주위를 일곱 번 또는 원하는 만큼 돌았으며, 봄와프(Tawaf) 그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계시를 받고 난 후 부터는 더욱 더 알라(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열중하고 복종하였으며, 예배 때 서서 코란(Quran)을 낭송하느라 다리가 부어 오를 때도 있었다. 무슬림 하디스(Hadith)에서 자비르가 전하기를: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메카에 입성하였던 라마단(Ramadan) 달에 나섰다. 단식 중이었고 사도께서 목동이 있는 곳까지 가셨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단식 중이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인간들을 위해 베푸신 자비이다.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당시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단식을 금하셨던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라마단(Ramadan) 달에 단식을 의무화했지만 여행 중일 경우에는 음식을 먹도록 했다. 그리고 건강해서 단식을 해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용했다. 라마단(Ramadan) 때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여행 중에 단식을 하고 그분의 교우들은 음식을 먹었던 경우도 있었다.

상황에 따라 단식을 의무로 명하고 또 음식을 허용하셨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강압적인 분이 아니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코란(Quran)에 언급하기를(나는 그대를 세상에 자비를 펴기 위해서 보냈다)

오마르(Umar)의 아들이 전하기를: 라마단(Ramadan) 기간이었을 때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단식을 하자 사람들이

단식을 했다. 그러자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사람들이 단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사도님께서는 단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과 같지 않도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다.

또한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기를: 그대들 중 누가 나와 같은가? 나는 주님의 옆에서 잠을 자고 그분께서 음식과 물을 주신다.

그들이 단식을 중단하지 않자 사도님께서 사람들과 단식을 이틀 더 하셨다. 그리고 달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달이 뜨지 않았다면 그대들과 단식을 더 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단식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로 나타났을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송배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행복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아부 알자르다이”가 말하기를: 라마단(Ramadan) 기간 중 매우 더운 날 우리는 사도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 너무 더워서 우리들 중 손을 머리에 얹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도님께서만 단식을 하셨다. 당시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께서는 신앙적 생활을 하면 육신의 평안을 얻고 피곤과 고통을 잊으셨다. 사도님께서 빌랄(Bilal)에게 말씀하기를, 빌랄(Bilal)아! 나는 그것으로 휴식을 갖는다.

그것이란 바로 예배를 가리킨다. 사도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휴식과 평안을 찾으시고 피로와 고통을 잊으셨다.

그것은 알라(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복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 모두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Allah)

을 위해서이니라!] 안암장 162아야(절).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Allah)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홀륭한 모범이 있었거늘 이는 하나님(Allah)과 내세와 하나님(Allah)을 염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이니라!] 아흐잡장 21아야(절).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언행이 인간들이 따라야 하는 표상이었다.

코란(Quran)에 언급하기를, [그는 장난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계시를 받은 말씀이니 강력히 그것을 가르쳤다] 알라(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Mohammed)께서 계시를 받으신 후 알라(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가르치고 그분의 삶 그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알라(하나님)께서는 사도님의 위치를 숭고한 위치로 높여 주시고 그분을 믿고 복종하는 자들의 이맘(Imam)이며 지도자로 하셨다.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Ummah)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을 주셨으며, 알라(하나님)께 진실된 헌신을 하는 필요한 요건으로 물욕과 악덕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하셨다. 알라(하나님)를 경배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과 올바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라(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높은 이상을 실현하고 그 규범에 따라야 한다. 그들 모두 알라(하나님)의 사도님께서 실천하신 규범을 배우고 익혀서 최후의 심판 일까지 선과 축복이 넘치며 평화롭고 행복하며, 악을 근절하고 알라(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승리를 얻어야 한다.

16. 사도 무함메드(Mohammed)의 계시 시작과 사도로서의 임명

계시를 받기 이전의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무명인사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정하고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혼자서 은둔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은 시간을 히라동굴(Cave of Hira)에서 전지전능하신 알라(하나님)를 경배하는 데 보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가면 관대하게 음식을 베풀어 주는 그의 선행과 그분의 의도와 위치를 알고 있었다.

이븐 이스학이 말하기를: “와합 이븐 카이싼 마울라 알 주바이르”가 내게 말하기를: “압둘라 이븐 알 주바이르”로 부터 들었다. 그가 “아비드 이븐 우마이르 이븐 까탸다”가 알라(하나님)에게 말했다.

오! 아비드여! 어떻게 알라(하나님)의 사도님께 가브리엘(Gabriel)(Gabriel) 천사가 와서 계시가 시작되었는가?

아비드가 말하기를, 내가 있을 때 “압둘라 이븐 알주바이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매년 한달동안 히라동굴(Cave of Hira)에서 명상에 잠겼었다. 자힐리야(Jahiliyyah) 시대에 꾸레이쉬(Quraysh) 부족에게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당시 사도님께서 히라동굴(Cave of Hira)에 한달동안 은둔 생활을 하실 때 불쌍한 사람들이 그에게 오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최초로 사도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카아바(Kaaba) 주변을 돌아다니었다. 그는 일곱 번을 돌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원하는 만큼 땅을 돌아갔다.

당시 사도님의 은둔생활은 주님과 함께였다는 것을 메카

사람들은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를 원하면 그가 나타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베풀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그를 만나기를 원하면 그는 나타나서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결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의 은둔 또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었지 홀로 했던 것은 아니다. [알라(하나님)께서 그 분께 관용을 베풀고 그 분께 계시를 내리게 했던 달이 올 때까지] 그때 가 라마단(Ramadan) 달이었으며,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라마단(Ramadan) 달에 히라동굴(Cave of Hira)로 평상시 처럼 했고 그날 밤에 알라(하나님)께서 그 분께 계시를 내리셨다. 알라(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 가브리엘(Gabriel)(Gabriel)이 그에게 왔던 것이다.

부카리와 무슬림 하디스(Hadith)에 언급되었다: 아이샤(Aisha)가 전하기를, 최초 알라(하나님)의 사도께 계시가 내려질 때 새벽의 여명과 같은 것 이외에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서 그 분은 히라동굴(Cave of Hira)에서 은둔하여 명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셨다.

밤에 오랫동안 명상(알라(하나님))를 염원하고 경배하는)에 잠겼다가 카디자(Khadijah)에게 돌아가곤 했었다. 이러한 생활이 그에게 계시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느 날 그가 히라동굴(Cave of Hira)에 있을 때 그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읽어라!

내가(사도님) 말했다.: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읽어라!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를 덮고 꼭 껴안았다.

그리고서 나를 놔주며 말하기를: 읽어라!

내가 말했다: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자 나를 덮고 세 번째 꼭 껴안았다. 그리고서 나를 보

며 말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분(하나님)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읽어라 그대의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 후,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매우 멀면서 카디자(Khadijah)에게 갔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안아 주시오!! 나를 안아 주시오!! 그래서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안아 주었다. 그리고서 카디자(Khadijah)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냐? 그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하였다. “나는 무척 두려웠다.”

카디자(Khadijah)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알라(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쁘게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비가 당신께 이른 것이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아 내십시오!. 그리고 진실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서 그녀는 그를 떠나 그의 사촌인 “와라까 이븐 누우팔 이븐 아싸드”를 데리고 왔다.

그는 자힐리야(Jahiliyyah)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랍어를 쓸 줄 알았으며, 성경을 아랍어로 옮겨 적었었다. 그는 매우 나이 많고 장님이었다.

카디자(Khadijah)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조카의 말을 들어보시오!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조카여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서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셨다.

와라까가 말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내려왔던 거대한 모기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몰아 낼 텐데 당신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알라(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또는 그들이 떠나게 된다.

와라까가 말했다: 그렇다 당신에게 왔던 그런 사람이 왔던 적이 없었다. 만약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후 와라까는 바로 사망했다.

이것이 알라(하나님)께서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로 선택한 무함메드(Mohammed) 사도님께 일어난 최초의 계시이다.

그것은 바로 유일신의 종교를 선교하는 시초였으며, 전지 전능하신 알라(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둠 속에서 광명의 길을 제시하며, 정의가 불의를 물리치고 이기며 타락하고 병든 사회와 어둠과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억압과 폭정을 버리고 공정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알라(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알라(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코란(Quran)에 언급하였다.

[인간의 손이 저지른 부패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하였나니]
로움장 41아야(절)

이 다와(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 자세와 이슬람적 교육이다. 암둘라의 아들 무함메드(Mohammed)께서는 창조주 알라(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대리인으로서 최초의 선교사이다.

알라(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속적인 욕심에서부터 초월하게 하셨으며, 정신과 육신을 청결케 보호하셨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알라(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 알라(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도록 인간들을 인도하셨다.

당시 사도님의 나이는 40세였으며, 예수께서 탄생하신지 610년이 지난 때이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알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Allah)께 감사드립니다.

1999/3/2





한국이슬람교 전주성원

561-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7-10
TEL. (063) 243-1483, FAX (063) 272-8951